

# 식민지 대중문화와 '청춘' 표상

김지영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현대소설 전공  
rhizoma@unitel.co.kr

- I. 머리말
- II. '청년', '청춘'의 분화와 감성의 공공화
- III. 열정의 방출과 포획, 감성 주체의 딜레마
- IV. 환멸과 연민, 혹은 네거티브 아이덴티티
- V. 맺음말

## I. 머리말

청년, 청춘이란 젊음을 의미하는 서로 다른 표현이다. 활달한 신체적 역능과 왕성한 심리, 정서적 활동과 변이를 동반하는 젊음의 주기가 ‘청년’이라는 기호로 호명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의 일이다. 청년의 성격은 그것을 호명하는 역사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근대계몽기를 거치면서 청년은 구습과 구도덕에 저항하는 신문명의 상징이자 자수자강의 주체로서 특권화된다.<sup>1)</sup> 청년이 국민국가 건설의 요체이자 부모 세대로부터 독립한 자립적 계몽 주체로 개념화된 것은 한국 근대가 낳은 특수한 역사적 사실의 하나이다.

그런데 청춘은 청년과 조금 다르다. 오늘날 청춘은 청년과 일정 부분 동일한 시기와 상태를 지칭하면서도, 보다 더 유연하고 정서적이며 낭만적인 성격을 지니는 말이다. 청년이 젊은이의 진취적 사회적 의지력과 활동력을 포괄적으로 표상하는 어휘라면, 청춘은 다분히 정적인 성격을 띤다. 청춘이 표상하는 감상적·낭만적 성격은 정치 사회적으로 활발히 작동하는 ‘청년’의 경우와 달리, ‘청춘’이 대중문화가 호명하는 대표적 기표로 자리 잡게 하는 원인이 된다. ‘청춘’이라고 하면 〈맨발의 청춘〉, 〈청춘극장〉, 〈고교 알개시대〉 시리즈와 같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대중영화들을 우선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청춘’이라는 어휘가 늘 지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청춘이 낭만적·감상적 이미지와 더불어 사랑과 젊음을 결합한 대중문화의 지배적 표상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2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

1) 근대계몽기 ‘청년’이 지녔던 혁신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기훈의 「일제 시기 청년 담론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와 소영현의 『문학 청년의 탄생』(푸른역사, 2007)에서 자세히 논구된 바 있다. 이기훈은 근대계몽기부터 식민지 말까지 사회운동의 흐름과 연동하여 청년 담론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추적했고, 소영현은 1920년대 전후 등장하는 미적 청년이 새로움의 지표로 등장하는 역사적 계기를 검토하고 근대 주체 형성과정에서 미적 청년이 차지하는 위상을 논구했다. 그 밖에 이경훈의 「청년과 민족-『학지광』을 중심으로」(『대동문화연구』 44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269-303쪽)는 ‘청년’이 지니는 배타적 위계화의 언어 전략을 문학작품과의 연관 속에서 밝혔으며, 전정환의 「식민지 시기의 청년과 문학·대중문화」(『오늘의 문예비평』, 2004, 12, 36-56쪽)는 한국 대중문화 형성과정에서 청년이 지녔던 특수한 위상을 규명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 논문은 선행 연구의 토대 위에서, 청년과 구분되는 ‘청춘’의 개념적 분화와 식민지 대중문화 속에서 ‘청춘’의 표상 방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시기, 청춘은 ‘청년’이 표상하는 사회적·정치적 주체성의 일부를 개인적·문화적·정서적인 방향으로 굴절시킴으로써 젊음의 또 다른 일면을 가시화했다. 청년이라는 세대 기표의 출현과 더불어 근대화된 ‘청춘’은 다시 청년이 표상했던 사회성과 일정하게 분리되면서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춘’이라는 말의 역사적 굴절과정은 개인적·문화적·정서적 차원에서의 젊음이 역사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인식되고 조절되어왔는지를 밝혀줄 수 있는 유용한 단서가 된다.

청춘이라는 말이 지니는 이 같은 문제적 지점에 주목하면서, 이 글에서는 청춘이 표상하는 ‘청년과 다른 젊음’의 측면들이 한국역사 속에서 어떻게 가시화되고 표상되어왔는지를 개괄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전근대 시기부터 1920년경까지 ‘청년’과 ‘청춘’이라는 어휘가 변화한 과정 및 ‘청춘’이 획득한 의미의 근대성을 고찰하고, 3장에서는 그 결과 1920년대 중반부터 ‘청춘’이라는 어휘가 대중문화와 접촉하면서 가지게 된 문제적 지점을 살펴본 후, 4장에서는 1930년대 대중문화 속에서 ‘청춘’이 지녔던 내적 갈등과 의미론적 위상을 조명할 것이다. 이 같은 작업을 추동한 것은 ‘청년과 청춘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차이는 언제부터 발생한 것인가. 이 차이를 발생시킨 것은 어떤 힘과 욕망, 역학들인가. 이 차이 위에서 20세기 전반기 한국의 젊음들이 표상된 방식 속에는 어떤 사회적·정치적 조건들이 작용하고 있는가. 이 조건들과 표상들은 어떻게 서로 간섭하고 관련을 맺으면서 길항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이다. 이러한 질문을 지속하는 일은 젊음이라는 주체성이 지니는 사회적 위상을 복합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감각적·감성적 차원에서 젊음이 지니는 사회 문화적 위상을 재성찰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 II. ‘청년’, ‘청춘’의 분화와 감성의 공공화

푸름(靑)과 봄(春)을 합성한 어휘 ‘青春’은 전근대 사회부터 사용되었던 오랜 역사를 지닌 어휘이다. 아직 ‘청년’이라는 어휘가 개념화되기 전, ‘청춘’은 푸른 봄의 아름다움과 계절의 순환성에 비추어 젊음이라는 인생의 주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고, ‘소년(少年)’, ‘연소(年少)’

등의 어휘와 더불어 상대적인 의미에서 나이 어린 사람 일반을 지칭하는데 이용되었다. 그러나 ‘청춘’, ‘청년’, ‘소년’ 등이 연령을 뚜렷이 구분하거나 특정한 연령대를 집단적으로 지칭하고 인식하기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시대까지 어른과 아이의 구분은 혼인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혹은 생식이 가능한 자로서의 남녀와 그렇지 못한 자(장부, 부인, 소아)<sup>2)</sup> 등의 생물학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고, ‘소년, 연소, 청년, 청춘’ 등의 용어는 지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상대적·임의적 맥락에서 나이 어린 시기를 지칭하는 것에 가까웠다.

특히 ‘청년’, ‘청춘’은 ‘靑’이 가리키는 푸름이 상징하는 계절의 순환성에 비견하여 인생의 시기를 가리켰고, 비유를 통해 의미를 형성했던 만큼, ‘푸름’이라는 단일한 의미만 빌려온 ‘청년’보다는 푸름과 계절을 함께 접속시킨 ‘청춘’의 용례가 압도적으로 자주 쓰였다.<sup>3)</sup> ‘청춘’의 복합적 비유의 기능은 젊음을 단순히 시기적으로 지칭할 뿐만 아니라, 젊음이 지닌 미적 형상성을 함축했다.

- ① 소년 시절의 행락(少年樂)이제는 늙어버려서 탄식만 할 뿐이로다(老矣已矣徒歎歎)<sup>4)</sup>
- ② 노을 위로 솟구치는 청년 재자의 기상이어(青年才子氣凌霞)<sup>5)</sup>,
- ③ 지관의 명성은 청년 시절부터 우뚝했으니(地官聲譽屬青年)<sup>6)</sup>,
- ④ 태평이라 길한 현상 자랑할 만하고 말고(太平休象是堪誇)/청춘에 뜻 얻었네 우리들을 쳐다보소(青春得意看吾輩)<sup>7)</sup>
- ⑤ 어느새 반짝반짝 대머리로 바뀌다니(居然成白禿)/청춘의 그 모습은 다시 볼 길 없어라(無復有韶光)<sup>8)</sup>

①, ②, ③, ④에 쓰인 소년, 청년, 청춘이 상대적 의미에서 젊음의 ‘시기’를 가리킨다면, ⑤에서 사용된 ‘청춘’은 젊음의 시기가 표상하는

---

2)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나타나는 분류법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기훈, 「청년, 근대의 표상-1920년대 ‘청년’ 담론의 형성과 변화」, 『문화과학』 37(2004), 208-209쪽 참조.  
 3) 2011년 1월 28일 현재 한국고전종합 DB에 실린 고전번역서 원문에서 ‘靑春’의 용례는 277건 나타나지만 ‘靑年’의 용례는 단 17건에 불과하다.  
 4) 이색(李穡), 「少年樂」, 『(牧隱集)목은시고』 제9권.  
 5) 최립, 「亂後錄」, 『簡易集』 6권.  
 6) 서거정, 「奉使出京」, 『四佳集』, 『사가시집보유』 2권.  
 7) 정약용, 「탐화연(探花宴)」,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제1권.  
 8) 최립, 「공산록(公山錄)」, 『간이집(簡易集)』 제7권.

형상적 차원, 즉 미학적 아름다움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처럼 청춘의 비유적 함의는 시기나 연령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계절의 순환성에 의거하여 젊음의 상태를 형상적 이미지와 더불어 표상하는 데 용이했으며, 실제로 연령 구분의 잠재성이 배태되어 있는 ‘청년’보다 ‘청춘’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조선시대의 문헌에서 ‘청춘’은 주로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수사로 활용되곤 했다. 달리 말하면 ‘청춘’은 인생의 주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회학적인 구분이 아니라, 다분히 주관적이고 회고적인 관점에 의거하여 활용되었던 셈이다.

1897년 간행된 제임스 게일의 『한영저언』은 ‘소년, 청년, 청춘’을 모두 표제어로 실고, 삼자를 공통적으로 ‘youth’라 번역했다.<sup>9)</sup> 소년, 청년, 청춘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던 고전적 관습이 근대계몽기에도 이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근대계몽기에 세 어휘의 주도권은 눈에 띄게 달라지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청년’이라는 용어가 새로운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YMCA가 ‘기독교 청년회’로 번역, 등장하고, 영어 ‘youth’의 번역어로 ‘청년’이 유력해진 이래, 1890년대 말부터 조선에서도 ‘청년’이라는 어휘가 하나의 시대적 기표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조선의 미디어들은 자주독립과 국민국가건설이라는 긴급한 요청 아래 신문명 사회를 선취해나갈 주체로서 청년을 호명했다. “靑年이야말노 實노 國家의 中樞며 主動力”이고, “強固한 國家는 強固한 靑年을 賴하야 비로소 建設함을 得”<sup>10)</sup>한다는 강변 위에서 청년은 부국강병의 국가적 요청을 준비하고 실천해나가야 할 주도적 주체이자, 지식과 덕성을 갖추어 국민을 형성해야 할 중심의 위치에 자리 잡는다. 국민국가건설이라는 시대적 사명 위에서 청년은 신문명 사회를 선취해야 할 상징적 주체로서 성, 신분, 계급, 가치지향 등이 서로 다른 존재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내는 유력한 기표로 부상한 것이다.<sup>11)</sup>

“청년자제는 장래국가의 楨幹이 될 터히오 인민의 표준이 될 자”<sup>12)</sup>이니

9) 단, 소년과 청년이 모두 youth로 번역된 데 비해, 청춘은 the green and salad year of youth로 부기되는데, 이는 청춘의 비유적 함의를 염두에 둔 번역으로 보인다.

10) 「국가의 주동력」, 『대한유학생회학보』 2호(1907. 4), 4-5쪽.

11) 이상 근대계몽기 청년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기훈의 앞의 논문(2005)과 소영현의 앞의 책(2007)을 참조했다.

12) 박은식, 「師範養成의 急務」, 『서우』 5(1907. 4), 2쪽.

“我青年이 自重의 德과 直往의 勇을 養호면 獨立維新의 事業을 可히 掌上에 運”<sup>13)</sup>한다는 기치 아래, 청년은 ‘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국가의 독립과 신문명 건설을 담당할 수 있는 선도적 주체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1900년대 말 일본 유학생들이 신문명 담론의 중심에 서면서 더욱 가속화 된다.<sup>14)</sup> 유학생 청년들은 스스로를 단순한 교육의 대상에서 나아가 자수자양(自修自養)의 세대로서 문명화를 선도하는 집단이자 인격을 갖춘 윤리적 주체로 재규정하고, 구습, 구세대와의 단절이 무엇보다도 신문명 건설의 첩경임을 강조했다.

신학/구학, 신도덕/구도덕, 신문명/구습 등 신-구의 대립 어법을 통해 새로움의 가치를 자기화하고 활용했던 ‘청년’은 이제 그 자체가 진보와 새로움을 표상했다. 이 청년은 조선의 전통을 불행하고 병적이며 야만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하여 놓은 것 없는 공막(空漠)한 곳에 각종(各種)의 창조(創造)함”<sup>15)</sup>을 신문명의 과제로 인식함으로써 “〈없이 없는 인물〉, 〈함이 없는 인물〉”<sup>16)</sup>들인 구세대와 구별하여 신사회를 건설할 것을 자신들의 책무로 인식했다. 스스로를 신문명의 기관이자 신체로 의미화함으로써 ‘청년’은 더 이상 단순한 인생의 주기만을 중립적 어휘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능력을 부여받은 세대 분절의 개념으로 재정립된 것이다.

이처럼 청년이 시대적 기표로 부상하면서 ‘청춘’의 용례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sup>17)</sup> 근대계몽기 학회보에서 청춘은 철저히 ‘시기’를 가리키는 말로 제한된다. “靑春少年을 攄량마시오 明鏡白髮이 可惜호도다”<sup>18)</sup>, “靑春이 不再來호니 白日을 莫虛度라”<sup>19)</sup>, “靑春이 一去後에 秋色이 必至로다”<sup>20)</sup>

13) 「我靑年社會의 責任」, 『태극학보』 25호(1908. 10), 15쪽.

14) 1890년대까지 ‘청년’은 유학생층의 ‘자제’ 개념과 결합하여 교육구국운동의 대상으로 즉, 교육을 통해 국민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칭되다가 1910년대 말 일본 유학생층이 담론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보다 자립적인 자수자양적 개혁의 주체로 대두 되기 시작한다. 이기훈, 앞의 논문(2005) 참조.

15) 이광수, 「금일 아한 청년의 경우」, 『이광수 전집 1』(삼중당, 1967), 478쪽.

16) 위의 글, 478쪽.

17) 국사편찬위원회에 입력된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할 때, 1905-1910년까지 발행된 근대계몽기 학회지에서 ‘청년’의 용례가 485건 등장하는 데 비해 ‘소년’은 149건, ‘청춘’은 26건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조선시대의 사례와 뚜렷이 대조를 이루는 현상이다.

18) 김유탁, 「西友師範學校徒歌」, 『서우』 4호(1907. 3), 39쪽.

19) 「春調로 贈畿湖學生」, 『기호홍학회월보』 9호(1909. 4. 25), 40쪽.

20) 최석하, 「無何鄉漫筆」, 『태극학보』 4호(1906. 11), 45쪽.

등의 예에서와 같이 ‘청춘’은 거의 예외 없이 짧은 젊음의 시기를 지칭하는 시간적 수사로 쓰였고, “風流歲月에 青春을 虛送하고 正義人道를 覺悟한 者ㅣ 少하며”<sup>21)</sup> 등의 예와 같이, ‘청춘을 허송하지 말라’는 부정적 어법 속에서 애국을 위한 매진의 자세를 독려하는 데 활용되었다. 신문명의 주체로 호명되고 있던 ‘청년’과 달리, ‘청춘’은 철저히 인생의 한 주기를 가리키는 시간의 단위로 사용되었고, 봄과 푸름의 아름다움은 이 시간의 찰나적 성격을 지칭하는 데 동원되고 있었던 것이다.

계몽 언설과 다른 차원에서 ‘청춘’의 용례를 보여주는 사례는 신소설들이다. “청춘시절만 허송을 하고”(이인직, 『치악산 下』, 동양서관, 1911, 69쪽), “청춘을 눈물과 혼숨 속에 늙히 고져 하니”(김필수, 『경세종』, 광학서포, 1908, 48쪽), “청춘에 호을노 되야”(이해조, 『모란병』, 박문서관, 1916, 58쪽), “이팔청춘 젊으나 젊은 때에”(이해조, 『구의산 上』, 신구서림, 1912, 73쪽), “젊어 청춘에 임석겨 노잔다”(이해조, 『두견성』, 보급서관, 1911, 107쪽), “화창한 청춘 시절이 도라왔더라”(김교제, 『비행선』, 동양서원, 1912, 146쪽), “오늘 청춘이 너일 빅발은 정훈 일”(최찬식, 『추월색』, 동양서원, 1912, 7쪽) 등의 사례에서 보듯, 신소설에서도 ‘청춘’은 대체로 시기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다만 ‘이팔청춘’, ‘청춘의 과부’ 등의 사례가 자주 나타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신소설의 ‘청춘’에는 학회보와는 다르게 지나가는 젊음의 아름다움과 그에 대한 안타까움의 뉘앙스가 도드라진다. 그러나 신소설의 통속성이 지속적으로 비판되고 계몽 논설이 지배적 언설을 장악했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청춘’의 감성적 함의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으로 숨어 있었을 뿐, 담론의 표면으로 부각되지는 못했다.

1914-1918년 신문명 건설의 주체로서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발간된 최남선의 잡지가 『청춘』이라는 표제를 표방했던 것은 그런 점에서 주목에 값한다. 『아이들보이』, 『붉은 저고리』 등 아동용 잡지와 분기하면서 창간된 『청춘』은 『소년』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소년』의 일반적 화자였던 15세 미만의 ‘소년’ 이상으로 독자 대상을 이동시킨 잡지였다.<sup>22)</sup> “우리는 여러분으로 더부러 배움의 동무가 되려 합니다. 다 가치 배움시

21) 김기환, 「한국금일의 청년사업」, 『대한홍학보』 6호(1909. 10. 20), 18쪽.

22) 윤영실, 「국민국가의 주동력, ‘청년’과 ‘소년’의 거리」, 『민족문화연구』 48호(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111쪽, 120쪽 참조.

다. 더욱 배호며 더 배혹시다”(『청춘』 1호, 1914, 5쪽)로 시작하는 『청춘』의 권두언은 “우리 대항으로 하여금 소년의 나라로 하라”(『소년』 1호, 1908)라는 저 『소년』의 역설을 계승하면서, 과거와의 단절 및 신지식 습득이라는 이중 과제를 통해 새로운 사회건설의 주체를 정체화하고자 했다. 당시 학습의 주체이자 신문명 건설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이 존재들은 ‘청년’이라는 기표를 향해 수렴되고 있었지만, 『청춘』이라는 표제가 마련될 시기까지 소년, 청년, 청춘이라는 기표의 의미가 아직 명확하게 분기되지는 않았던 1900년대의 상황은 일정 부분 지속된다. 『소년』에 「신시대 청년의 신호흡」(1909. 3), 「청년학우회의 주지」(1910. 6), 「금일 아한 청년의 경우」(1910. 6)와 같은 글이 실리고, 학습과 수신의 주체로서 소년과 청년이 구별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청춘』 또한 〈어린이 씬〉(창간호), 〈새 아이〉(3호) 등을 권두시로 내세울 만큼, 그 독자 집단의 호칭을 명확하게 분절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이 ‘소년’, ‘청년’이 아니라 봄의 비유를 살린 ‘청춘’을 제목으로 내세운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이 잡지가 문학, 예술 등 문화적 장을 통한 신지식 습득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감성적 열정의 차원에서 신문명을 향한 배움과 실천을 견인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잡지 『청춘』의 眞 가치는 “오죽 心을 殫하고 誠을 竭하는 적성열혈의 유무에만 在”하며 『청춘』은 “전혀 이것(적성열혈: 인용자)의 화신”이라고 본 한 독자의 투고문은 열정의 자극을 통해 문명화의 저력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잡지의 의도를 여실히 간파해낸다. 소설과 시가(詩歌), 시각적 화보와 노래 등의 장르를 적극 포섭하면서 감각적 문화의 차원에서 계몽의 열정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청춘’은 이처럼 신문명 건설의 주체로 호명된 청년 세대의 열정을 견인해 내기 위해 설립된 제목이었지만, 아직 이 호명이 함축하는 열정의 의미는 의식의 표면 위로 부각되지는 못했다. 잡지 『청춘』에서 제목 이외에 ‘청춘’이라는 용어를 표제로 앞세운 글이나 지면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청춘’이 표상하는 봄과 푸름의 상징적 의미가 단순히 인생의 일주기를 가리키는 시기적 의미를 넘어 본격적 전환을 맞은 것은 근대 동인지 문인들에 의해 새로운 미학이 발생하고부터였다. 다음의 예에서 사용된 ‘청춘’의 의미는 전대의 용례와는 현격한 거리를 드러낸다.



감정은 청춘의 그 가장 위대한 문화이다./청춘의 생명은 그 감정의 衾褥中에 들어있다./감정은 청춘의 그 생명의 일종의 숨든 錦衣며, 또한 그(생명)를 飽케 하며, 醉케 하며, 歌케 하며, 舞케 하는 그의 유일한 俱樂部이다./감정은 청춘의 그 생명의 배양되는 일개의 비옥한 밭이다, 대지이다./청춘의 그 특수한 무르녹은 芳醇한 향기와 그 맑은 음향과 또는 그 萬色의 영롱·찬란한, 화려한 광채는 모다 이 감정의 안으로부터 발효되며, 울리며, 流露되어 나오는 者이다./감정은 청춘의 그 天來의 문화이다,

청춘의 그 감정은 일종의 三位像의 享樂慾을 가져있다. (1)은 식욕(間食的, 道樂的 食慾) (2)은 美慾, (3)은 戀愛이다./이 三位像의 享樂慾은 청춘의 그 감정이 가진 지존의 지위의 욕망의 一이라 하겠다. 그중의 가장 인기 있는 寵運되는 연애이다./연애는 청춘의 식욕의 그 가장 친한 자매며 또는 그 생명의 가장 갖가운 죽마의 벗이다.<sup>23)</sup>

1920년대 동인지 문인이자 근대시 선구자의 한 사람이었던 황석우가 1923년에 발표한 윗글에서 ‘청춘’은 감정을 생명으로 삼으며, 감정을 통해 찬란하고 화려한 광채를 발휘하는 어떤 것이다. 이 글에서 청춘의 광채는 욕망과 향락을 부정하지 않으며, 내면으로부터 발효되고 표출되는 감성의 향기와 음향을 적극적으로 향유한다. ‘청춘’은 향락의 욕망을 공공연히 표방하고 욕망에 지존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젊음의 존재를 새롭게 이해하는 관념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감정과 욕망에 대한 이 같은 긍정이 가능하게 된 것은, 191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정’의 재발견과 무관하지 않다. ‘정’의 발달 정도를 통해 문명과 인격 발달의 수준을 가늠했던 저 「동정」<sup>24)</sup>의 강변 이래, 1910년대의 청년 지식인들은 ‘정’을 개체의 내면으로부터 계몽의 자발적 추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력한 원천으로 재발견했다.<sup>25)</sup> “정육(情育)을 기면(其勉)하라. 정육을 기면하라. 정(情)은 제의무(諸義務)의 원동력(原動力)이 되며 각 활동(各活動)의 근거지(根據地)니라”<sup>26)</sup>라는 계몽의 외침 속에서 ‘정’은 개체의 자발적 감정과 집단의 사회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접속시켜 청년의 열정을 계몽의 열정으로 견인해낼 수 있는 주요한 동력이었다.

23) 황석우, 「戀愛(寸想), 어느 愛에의 迫害를 받는 二二의 젊은 靈魂을 爲하여」, 『개벽』 32호(1923. 2), 49쪽.

24) 이광수, 「동정」, 『청춘』 3호(1914. 12), 57-64쪽.

25) 1910년대 ‘정’의 재맥락화에 대해서는 다음 책에서 자세히 소개된 바 있다.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2000), 27-38쪽.

26) 이광수, 「금일 아한 청년과 정육」, 『이광수 전집』 1(삼중당, 1962), 475쪽.

1910년대 ‘정’ 담론이 개체와 집단의 이해를 일치시킴으로써 계몽의 열정을 고양하는 데 이용되었다면, 감정을 ‘청춘의 생명이 배양되는 대지요 天來의 문화’로 정의하는 위 인용에서, ‘청춘’ 속에 깃들어 있던 개체와 집단의 균형은 개체의 월등한 우위를 향해 유감없이 전환된다. “청춘의 생명은 그 감정의 衾褥中에 들어 있다”라는 부르짖음 속에서 젊음의 시기를 집단적 목표 아래 귀속시키려 했던 1910년대식 균형감각은 여지없이 혁파되는 것이다. 감정과 욕망에 대한 이처럼 적극적인 긍정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1920년대 동인지 문인들의 변화된 인간관과 세계인식에 말미암는다. 동인지 문인들은 외부에서 주어진 이념이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자아 내부에야말로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의 기준이 내재한다고 믿었다. “自己 個性에 依하여 그 生命의 뜻을 잘 培養”하는 일에 지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나의 전 생명의 절대적 표현을 요구”<sup>27)</sup>하는 일이야말로 시대마다 변화하는 정치적 구호와는 비교할 수 없이 깊고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일이라고 확신했다.

“무엇보다 먼저 自己에게 忠實하라”<sup>28)</sup>는 새로운 명제와 개인의 내면 감정이야말로 진실한 것이라는 동인지 문학인들의 인식적 전환 위에서, ‘청춘’이 표상하는 젊음은 ‘청년’이 표상했던 공적인 속박에서 풀려나 한층 자유로움을 맛보게 된다. ‘청춘’은 개체적 욕망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생물학적이고 심미적인 욕망들(“식욕, 미욕, 연애”), 표현행위(생명을 “飽케 하며, 醉케 하며, 歌케 하며, 舞케 하는”), 쾌락 욕구(“享樂慾”) 등 공적 가치에 복무하지 못했던 충동과 정서들이 ‘감정’과 ‘생명’의 이름으로 공식적 긍정성을 얻게 된 것이다. 개체의 내부에 숨어 있는 감각과 정서에 대한 초유의 긍정 속에서 ‘청춘’은 이제 “芳醇한 향기와 [...] 맑은 음향과 [...] 영롱·찬란한, 화려한 광채”의 감각적 예찬을 통해 이미지화된다. 이처럼 젊음을 감정과 감각, 욕망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시각은 이전의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사회적 책무가 아니라 감각과 열정의 차원에서 젊음을 공공화하는 인식의 전환 위에서 ‘청춘’은 근대적으로 재의미화된다.

27) 오상순, 「虛無魂의 獨語」, 『폐허이후』, 117쪽.

28) 염상섭, 「개성과 예술」, 『염상섭 전집』 12권(민음사, 1987), 35-36쪽.

### III. 열정의 방출과 포획, 감성 주체의 딜레마

근대계몽기의 학회보와 1920년대 초반 잡지의 ‘청춘’ 용례가 드러내는 이 현격한 용법의 차이는 이 시기 젊음의 주기가 인식되고 구성되는 방식의 전환이 얼마나 급격한 것이었는지를 실감하게 한다. ‘청춘’의 이처럼 급격한 변화는 1920년대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한 ‘연애’의 새로운 풍속과 긴밀히 접촉된다. 연애는 1910년대까지 공적 가치에 압도되어 있던 청년들을 새로운 의미의 ‘청춘’이라는 감각 속으로 진입시켜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사랑과 결혼이라는 사적인 가치에 공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준 연애라는 신개념은 사회적 의무에 의해 규정되는 인간 이전에 감각적·감성적 존재이자 욕망의 존재로서의 인간을 긍정하는 새로운 인간관과 더불어 공식화되었고, 내면적 자율성에 기반한 청년들의 새로운 가치관과 사회적 실천을 ‘청춘’이라는 언표 속에서 새롭게 공식화할 수 있는 내재적 토대였다.

‘연애’와 결합한 ‘청춘’의 새로운 감각은 급속하게 확산되는 근대 문학과<sup>29)</sup> 대중 미디어들을 통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신문은 자유로운 혼인의 좌절에 목숨으로 저항하는 젊은이의 사연들을 연이어 보도했다. 「戀愛끝해 情死-청춘남녀 두 명이」(《동아일보》, 1923년 1월 2일자), 「청춘남녀의 情死-여자는 죽고 남자는 살아」(《조선일보》, 1923년 9월 10일자), 「……十六歲青春으로 强制結婚에 犠牲된 꽃가튼 處女!」(《동아일보》, 1924년 6월 11일자), 「無理解와 壓迫으로 자살한 청년-18세의 가련한 청춘으로 세상을 비관……」(《조선일보》, 1924년 10월 25일자), 「强制結婚의 犠牲者, 십팔세 청춘을 古차박회에」(《동아일보》, 1924년 11월 19일자), 「사랑의 破綻을 悲觀하고 青春男女의 情死」(《동아일보》, 1925년 11월 30일자), 「청춘 여자 자살-시집가기 싫어」(《조선일보》, 1927년 7월 30일자), 「애욕과 정열에 타는 霜刃. 청춘남녀 정사 참극」(《조선일보》, 1928년 12월 10일자), 「頑固한 家庭의 犠牲-青春男女情死」(《동아일보》, 1929년 5월 6일자) 등 1920년대부터 강제결혼 혹은 연애의 좌절에 비관한 젊은 남녀의 자살기사는 신문의 단골 소재로 등장했고, 이 같은 자살보도에는 “참사의 원인은

29) 1920년대 근대문학은 언론 매체와 도서관 등을 매개로 문화 전 영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해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천정환, 앞의 글, 46쪽 참조.

조혼의 폐해”<sup>30)</sup>, “강제결혼의 희생”<sup>31)</sup>, “금일의 조선을 말하는 일면상”<sup>32)</sup>, “완고한 부모를 반성케”<sup>33)</sup> 등과 같이 전통 인습과 부모 세대의 과오를 비난하는 어구들이 따라 붙곤 했다. 열거한 제목에서 드러나듯 이러한 기사들은 희생자들의 젊음을 강조하고 이들에 대한 낭만적 동정과 연민을 유도하기 위해 ‘청춘’이라는 기표를 이용했다. 자유연애와 신문명적 삶을 희구하는 청년 세대의 욕망을 구시대적 인습의 구속에 의해 굴절되는 희생자의 이미지로 강조하는 미디어의 수사 속에서, ‘청춘’은 자율적·결정권을 요구하는 새 세대의 감각적·감성적 욕망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구습에 대한 저항의 기치 아래, ‘청춘’은 서로 다른 젊음의 욕망들을 동일화시키고 이를 정당화하는 긍정적 기표로 기능하는 것이다.

한편 연애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근대화되었던<sup>34)</sup> 문학의 수사는 사랑과 청춘에 대한 감각을 혁신해 나갔다. “당신은 청춘이외다. 청춘은 청춘끼리 사랑할 수 있지 안어요!”<sup>35)</sup>라는 고백, “나는 당신께 청춘도 바쳤서요. 눈물도 바쳤서요. 나의 존재도 바쳤서요”<sup>36)</sup>라는 호소가 근대소설의 자격을 획득하는 소재인 양 현상문예의 지면을 장식했고, 극적 인생을 살이간 서구 소설가에게는 “청춘의 불꽃 가운데 넘어진 사람”<sup>37)</sup>이라는 동경과 칭송이 쏟아졌다. 예술에 대한 열망을 교환하고 토로하는 순간은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가 되”<sup>38)</sup>는 순간으로 화려하게 미화되었으며, “청춘의 특권이요, 색채라 할 만한 정열이 고갈한 것”<sup>39)</sup>은 청년다움의 자격을

- 
- 30) 「애육과 정열에 타는 霜刀. 청춘남녀 정사 참극」, 《조선일보》, 1928년 12월 10일자.  
 31) 「強制結婚의 犧牲者, 십팔세 청춘을 기차박회에」, 《동아일보》, 1924년 11월 19일자.  
 32) 「無理解와 壓迫으로 자살한 청년-18세의 가련한 청춘으로 세상을 비판자살한 吳秀泳, 금일의 조선을 말하는 일면상」, 《조선일보》, 1924년 10월 25일자.  
 33) 「불평, 비판으로 청춘에 황천지원-완고한 부모를 반성케 하고자 귀중한 목숨을 희생한 청년!」, 《조선일보》, 1925년 6월 20일자.  
 34) 근대문학이 자유로운 사랑이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중심으로 청춘의 감각을 형성해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랑에 덕힌 티도로 족히 인성에 덕힌 티도를 결명할 수 있다고 믿는” 형식의 삼각연애 갈등이 그대로 계몽적 자각의 과정으로 형상화되었던 『무정』(1917) 이래, 1920년대 동인지와 신문, 잡지에 실린 수많은 소설이 연애의 문제로 고통 받는 젊은이들의 번민을 다루었고, ‘청춘’의 동질성을 확인해갔다. 『무정』에 나타난 연애의 문제에 대해서는 김지영, 『연애라는 표상-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사랑』(소명, 2007), 참조.  
 35) 이기영, 「옴바의 비밀편지」, 『개벽』 49호(1924. 7), 148쪽.  
 36) 최석주, 「과별」, 『개벽』 49호(1924. 7), 132쪽.  
 37) “뒤틀한 運命을 바든 神秘한 사람이여! [...] 네 자신의 청춘의 불꽃 가운데 넘어진 사람이여!”, Edgar Allan Poe 저, 김명순 역, 「相逢」, 『개벽』 29호(1922. 11), 25쪽.  
 38) 임노월, 「경이와 비애에서」, 『개벽』 21호(1922. 3), 24쪽.  
 39) 염상섭, 「만세전」, 『염상섭전집』 1권(민음사, 1987), 27쪽.

압박하는 심각한 고민거리의 하나로 나타났다. “남루한 봄의 몸에는 내 붉은 청춘의 피로 새롭게 물들여 입히려 합니다”라든가 “花輪과 진주를 가지고 네 청춘을 장식코자 한다”<sup>40)</sup> 따위의 낭만적 수사가 범람하는 가운데, 문학의 수사들은 “청춘의 뜨겁고 고혼 저 알 수 없는 뽀얀 곳”<sup>41)</sup>으로 젊음의 감성을 충동해갔다.

1923년 간행된 『사랑의 불꽃』의 대대적인 성공은 연애와 청춘의 새로운 감각이 전파된 결과인 동시에 대중적 확산을 진전시킨 하나의 기폭제였다. 청년남녀가 주고받는 다종한 사랑의 편지들을 묶어 출간한 이 책의 신문 광고는 청춘과 연애의 감상적 열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 책은, 현대신문사들이, 청춘의 열정과, 피와, 눈물과, 한숨과, 우음을 쫓아, 아름답고 묘하게 쓴 「러브레터」(戀書簡)집이니, 그 아름답고 묘함은, 품속에 숨은, 한 포기 백합화 갖기도 하고, 달 아래 흐르는, 맑은 시내 갖기도 하여, 구구마다 금옥이오, 간간히 향기라. 청춘으로 하야금, 취게 하고, 청춘으로 하야금, 울게 하지 아니하면, 마지 아니하리라. 그 내용은 예술화하고, 시화하여, 시 이상의 시이오, 소설 이상의 소설이요, 소품 이상의 소품이다. 연애에 우는 자도 있고, 연애에 취한 자도 잇스며, 연애에 죽은 자도 잇서서, 피에 살고, 눈물에 사라, 청춘으로 하야금 갖치 울게 하고, 갖치 웃게 하리니, 연애를 알고저 하는 자나, 연애에 실패한 자나, 연애에 깃버하는 자나, 다시 한 거름 나아가, 청춘과 인생의 문대를 알고저 하는 자는, 그 누구를 물론하고, 기어히 일독할 가치가 잇습을, 절대책임을 지고 말하여 둔다.<sup>42)</sup>

독자 대상을 청년이나 학생이 아니라 ‘청춘’으로 명명하는 이 광고는 열정, 피, 눈물, 한숨, 웃음, 아름다움, 향기 등 근대문학의 낭만적 수사들을 계승하면서, 연애와 눈물, 도취를 ‘청춘’의 속성으로 일반화했다. 피·눈물·향기 등 신체적이고 ‘감각’적인 소재와 열정·웃음·슬픔의 ‘감정’들이 달빛·백합화·시내 등의 자연물과 접합하여 낭만적 도취를 유도하는 가운데, 연애와 눈물은 “청춘과 인생의 문대”의 핵심으로 부각된다. 사랑이라는 철저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과 밀착함으로써 청춘은 개체의 내면적 감성과 그 발현의 문제를 무엇보다도 긴급한

40) 임로월, 「불멸의 상징」, 『개벽』 27호(1922. 9), 39쪽.

41) 성태, 「광란」, 『개벽』 51호(1924. 9), 50쪽.

42) 「연애의 서간집 사랑의 불꽃」(광고), 《동아일보》, 1923년 2월 11일자.

인생의 문제로 특권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의무나 윤리적 가치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을 앞세우는 젊음의 표상이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신문명 건설의 주축으로 호명되었던 청년상에는 이전과는 다른 균열이 발생한다. 이 균열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동일 존재를 지칭했던 청년과 청춘이라는 개념 간의 차이 및 균열과도 무관하지 않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근대계몽기 ‘청년’이라는 말은 신지식을 습득하고 신문명 사회를 건설할 주역으로서 학생 세대를 주체화했다.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지상 과제 아래, ‘청년’은 개인의 행복과 민족의 번영이라는 별개의 목표를 갈등 없이 절충하고 공존시켰다. 강제병합 이후 구국 및 인격 완성의 과제와 입신출세의 욕망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고, 신문명의 세례를 받은 청년들의 허영심과 사치심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출현하지 만<sup>43)</sup>, 젊음이 표상하는 새로움과 쇄신의 이미지는 개인의 현재에서 사회와 국가의 미래까지 전 영역을 관통하는 원리로서 ‘청년’의 위상을 강력하게 견인했다. 1920년대부터 급속도로 진척된 청년회 활동은 이 같은 청년상이 식민지 현실의 토대 위에서 실천적으로 구체화된 결과였다. “신사상을 확립케 하며 경제적 권리를 회복케 하는 모든 운동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곧 청년”<sup>44)</sup>이며, 불의와 부패와 빈약과 고루와 인습과 허위와 허례의 타파가 청년의 임무<sup>45)</sup>로 강변되는 가운데, 1920년대 중반까지 ‘청년’은 근대계몽기부터 마련되어왔던 개혁 주체의 이미지 속으로 환원되었고, 사회개혁과 계몽활동의 역군이라는 이상적 청년상 속에서 ‘청년’ 개념은 개체적 차이와 욕망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밀어내면서 일정한 동일성 속으로 수렴되어갔다.

이와 달리 개체의 내부에 잠재하는 감성적 내면을 공식화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한 ‘청춘’은 젊음의 감각적·감정적·육체적 욕망의 측면에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청춘’은 ‘청년’이 부차적이고 잉여적인 사항으로 밀어냈던 개인의 정서와 행복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했다. ‘청춘’의 새로운 합법화에 이르러 청년들은 비로소 근대계몽기 이래 지속되어온

43) 소영현은 앞의 책(2007)에서 『소년』, 『청춘』을 중심으로 1910년대 ‘청년’에 대한 담론 안에 발생한 차이와 균열의 지점을 정밀하게 분석해냈다.

44) 「지방발전과 청년회의 관계-활력의 근원」, 《동아일보》, 1922년 5월 27일자.

45) 「청년회연합에 대하여 각지 동회에 경고하노라」 《동아일보》, 1920년 7월 9일자.

공사 일치의 압박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랑과 욕망을 거리낌 없이 내어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체와 공동체의 관계를 강조했던 ‘청년’과 달리, 개체를 내면적 감각 및 욕망과의 관계 속에 위치시킨 ‘청춘’에 의해 계몽적이고 이상적인 청년상을 향해 수렴하는 젊음의 규격화된 표상질서는 도전을 받는다. 청춘이 표상하는 젊음은 인간 내부의 감정과 욕망을 적극적으로 긍정했으며, 미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지향하는가 하면, 육체적 욕망과 섹슈얼리티까지도<sup>46)</sup> 능동적으로 포섭했다.<sup>47)</sup>

청년과 청춘을 호명하는 미디어 지면들의 수사적 특성들은 두 기표의 이질적인 개념화 작용 방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청년 담론들이 독자 대상을 ‘오배 청년아’, ‘청년 제군이여’와 같이 웅변적 연설 속에서 집단적으로 호명하고 ‘-해야 한다, -할 것이다’라는 당위적 명령 속에 청년의 미래를 규정했다면<sup>48)</sup>, ‘청춘’을 호명하는 미디어의 지면들은 ‘아!’, ‘청춘!’,

46) “청춘에게 就하야는 彼藝術慾과 성욕은 동일한 根上의 것이다. [...] 彼青春의 所云 抒情詩되는 者는 그 성욕의 繪化, 음악화된 者에 불과하다.” 황석우, 앞의 글(1923. 2), 50쪽.

47) 실제로 1930년대에 들어서면 ‘청춘’이 청년 학생의 배타적 문화 범주를 뛰어넘어 다양한 계층과 감정, 욕망들을 포용하는 경향이 더욱 가속화된다. 1930년대 신문의 헤드라인에서 ‘청춘’을 표제로 한 기사들은 이전부터 이어진 자살, 정사의 기사 외에 미용과 건강을 다루는 기사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 백분의 광고들은 “청춘으로 보이게 한다”는 어필을 판매전략으로 내세웠고, 「청춘미 보존과 음식물의 관계」(《중의일보》, 1930년 1월 22-25일) 「지나 여성의 미용법: 말향주와 식사로 청춘의 미를 보장한다」(《조선일보》, 1939년 11월 11일자), 「겨울의 화장법: 청춘의 광택미를 분으로 감추지 말 것」(《동아일보》, 1935년 1월 21일자), 「강력 남성 호르몬-청춘의 원천」(《조선일보》, 1934년 9월 20일자) 등의 기사들은 미와 건강을 청춘과 직결시킴으로써 청춘의 함의를 미학적으로 확장시켜나갔다. 청춘 자살의 이유로는 우울, 까닭 모를 슬픔, 봄 시절의 번민상 등 불투명한 젊음의 불안정성이 새롭게 부각되었고, 기생, 여급, 매춘부의 타락사와 관련된 흥미 위주의 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信仰과 青春과 싸호는 젊은 尼僧의 煩惱」(《每日申報》, 1932년 3월 25일자), 「장삼 넘어 환희사. 여승의 생활 이면 그들도 청춘이다」(《조선일보》, 1933년 6월 29일자), 「苦海輾轉의 一〇花 鐵窓에 시드는 青春誘惑의 魔手에 妊娠까지」(《동아일보》, 1935년 1월 12일자) 등과 같이 ‘청춘’이 직접적으로 섹슈얼리티를 연상시킬 수 있는 헤드라인들도 늘어난다. 우울과 번민, 미, 섹슈얼리티 등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여성’과 ‘노년’에게도 개방된 형태를 취하면서 청춘은 ‘모-던’으로 상징되는 문화적 현상과 더불어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젊음의 표상질서가 더욱 교란시켰다. 여성과 노년에 대한 배타적 분리 및 근대, 민족, 국가, 문명의 동력으로 개념화되었던 청년의 고정된 표상질서는 청춘의 유동성과 가변성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은 것이다. 이는 감각과 감정에 대한 가치 부여, 개체성의 긍정으로부터 의미화되었던 ‘청춘’의 함의가 근본적으로 내장했던 불확정적인 자질이 대중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더욱 확장된 결과이다.

48) 청년을 호명하는 기사들의 수사적 특성은 소영현의 앞의 책(2007)에서 자세히 기술된 바 있다.

‘이상!’ 등의 감상적 영탄을 앞세웠고, “청춘은 「빔」이다”<sup>49)</sup>, “청춘은 인생의 황금시대다”<sup>50)</sup> 따위의 주관적 정의와 추상적 비유들을 남발했다. 선동적이고 연설적인 청년 담론들이 집단성과 객관성에 호소하면서 이상적이고 미래적 존재태로서 청년의 개념을 만들어나갔다면, 감상적 형식을 취하는 ‘청춘’의 담론들은 주관성을 극대화하면서, 자연물에 대한 추상적 비유를 통해 감각과 감정의 형태 없는 추상성을 구체화하려 했다. 개인의 내면이란 객관화되기 어려운 만큼 ‘청춘’의 의미가 불합리와 비이성적 성격을 내포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1920년대 ‘청춘’이 발산하고 공표했던 정서와 욕망은 쉽게 감각과 감정의 어두운 충동과 연결되곤 했다. “청춘의 슬픔과 외롭이/지금, 내 가슴에 온다.”<sup>51)</sup>, “청춘에 傷惱되신 동모”<sup>52)</sup> 등 청춘을 슬픔과 상처, 눈물과 연결 짓는 구절들은 초창기 문학작품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다. 나아가 “세월이 갑니다. 청춘은 갑니다. 새파란 청춘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갑니다”<sup>53)</sup>라든가 “내 청춘은 破船의 警鍾을 울리”<sup>54)</sup>다 등의 예에서와 같이 ‘청춘’은 불길하고 파괴적인 충동과 종종 연계되었다.

감상적 연애 및 죽음과 슬픔의 정서를 실어 나르는 문학 서적들이 유행하고, 동반자살 기사들이 신문기사를 장식하며, 청년학생 간의 교제 풍속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청년의 사회적 임무와 주체적 역량을 역설했던 청년 담론 속에서도 1920년대 중반부터는 견제와 규율의 목소리가 현저하게 부상한다. “고등보통학교는 불량배, 불량자 양성소라는 악평”<sup>55)</sup>들이 등장하고, “부랑에 침윤하는 野俗한 도시청년”<sup>56)</sup>의 생활상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전까지 청년 담론을 추동하던 세대적 단절과 자수자양의 논리가 현격히 약화되고, 대신에 은인과 자중, 준비와 훈련을 강조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이다.<sup>57)</sup> 이와

49) 이돈화, 「청춘사」, 『별건곤』 21호(1929. 6), 4쪽.

50) 민태원, 「청춘예찬」, 『별건곤』 21호(1929. 6), 2쪽.

51) 별꽃, 「내 마음 근심 가득하매」, 『창조』 8호(1921), 96쪽.

52) 이상화, 「마음의 淸-청춘의 상뇌되신 동모를 위하여」, 『백조』 3호(1923).

53) 노자영 편, 『사랑의 불꽃·반항(외)』(원본은 1923)(범우, 2009), 295쪽.

54) 임로월, 「불멸의 상징」, 『개벽』 27(1922. 9), 38쪽.

55) 김도태, 「교원의 입장에서 학부형에게 대한 희망」, 『학생』(1930. 5), 3쪽.

56) 신흥우, 「실적 생활로 향하는 금일의 청년」, 『청년』 7권 6호(1927), 1쪽.

57) 이기훈, 앞의 논문(2005), 122쪽 참조.



더불어 청년, 청춘의 시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우울과 번민의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를 탐구하는 지면들도 눈에 띄게 늘어나는데<sup>58)</sup>, 과학의 이름을 빌려 청춘 시기의 불완전성을 강조한 이와 같은 기사들은 부형과 교육자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당부함으로써 이전과는 뚜렷이 달라진 청년의 위상을 드러냈다. ‘청춘’의 감상과 어두운 층동들은 신문명적 지식과 가치를 바탕으로 선도적 존재로 부상했던 청년을 “향당의 지식계급”<sup>59)</sup>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연장자의 지도와 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 변화시킨 것이다.<sup>60)</sup>

그러나 청년 담론의 이 같은 변화가 ‘청춘’이라는 어휘의 사회적 파장에 그리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sup>61)</sup> 무엇보다도 1920년대부터 본격화된 대중문화 자본이 적극적으로 ‘청춘’을 불러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1920년대는 신문잡지 등의 출판물뿐만 아니라 영화, 라디오, 유성기 등의 새로운 미디어가 보급되면서 조선의 대중문화 영역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던 시기이다.<sup>62)</sup> 대중문화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문화산업의 매체들은 문학이 혁신한 ‘청춘’의 새로운 감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58) 이러한 기사는 1920년대 중반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여 꾸준히 지속되는데, 다음은 1920년대 기사의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위험시기인 청춘시대의 위생」, 《동아일보》, 1925년 8월 23-24일; 「심리상과 생리상으로 본 청춘기 남녀의 번민과 동요」, 《조선일보》, 1926년 3월 13-14일; 「청춘기에 있는 자녀의 범죄-자녀교화상에 심상히 보지 못할 큰 문제」, 《조선일보》, 1926년 3월 27-30일; 조재호, 「인생삼대기, 청춘기의 특징」, 『별건곤』 21호(1929. 6); 「여자청춘기」, 《중외일보》, 1930년 8월 4-8일.

59) 김기진, 『향당의 지식계급 중학생』, 『개벽』(1925. 4).

60) 물론 이 같은 변화의 지면에서 청년의 단결과 선도적 역할을 역설하는 민족·사회운동계의 언설은 1930년대까지 여전히 지속되었다. 광주학생운동, 사회주의운동, 브나로드 운동 등 굵적굵직한 사회운동의 기류 속에서 ‘청년’을 민족 혁신의 선도적 주체로 간주하는 시선은 지속된다. 그러나 식민지 중반 이후 ‘청년’을 다루는 이 수사는 이전과 비교할 때 눈에 띄게 수축하며, 특히 대중문화의 장에서 ‘청년’의 위상은 현격하게 변화한다.

61) 일례로 《동아일보》에서, ‘청춘’을 표제로 한 기사는 1920년 2건, 1921년 5건, 1922년 8건, 1923년 4건 등 1920년대 초반 매우 적은 편이었다가 1920년대 중반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며(1924년 26건, 1925년 23건), 청년 담론이 전반적으로 선화하고 있는 1928년에는 40건으로 부쩍 늘어나기도 한다. 지면의 증면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이 증가폭은 상당한 편이다. 1920년대 중반 이후 《동아일보》의 ‘청춘’ 표제 기사는 식민지 전 기간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다.

62) 신문, 잡지, 영화, 라디오 등 미디어 매체들뿐만 아니라, 근대계몽기부터 기반시설을 마련해왔던 기차·기선·전신·우편 등의 보편화, 학교, 종교단체 및 행정체계에 의해 정보교류의 인적 네트워크, 각종 단체의 집회와 강습, 교류 또한 대중문화 영역의 본격적 성장에 기여한 중요한 요소들이다.

『사랑의 불꽃』의 대대적 성공 이래, 『청춘의 광야』(노자영, 청조사, 1924), 『청춘의 꽃동산』(삼광서림, 1927)과 같은 연애서간집은 상업적 출판 전략과 더불어 연속 출간되었고, 서간 형식을 갖춘 도스토예프스키의 Poor Folk가 『청춘의 사랑』(경성서관출판부, 1924)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수차례 재판을 찍었다. 나도향의 『청춘』(1920), 최독건의 〈청춘의 죄〉(『문예공론』, 1929)를 비롯한 근대 문학작품은 물론, 1920년대 중반부터는 신소설들도<sup>63)</sup> 『청춘홍안』(대성서림, 1924), 『이팔청춘』(강은형, 대성서림, 1925), 『청춘남녀』(강의영, 영창서관, 1927), 『꽃다운 청춘』(김영득, 백합사, 1927), 『무정한 청춘』(김상용, 영창서관, 1926), 『청춘화』(무궁생, 태화서관, 1927), 『의지할 곳 없는 청춘』(탄금대인, 청조사, 1927), 『청춘의 열정』(현병주, 박문서관, 1929)과 같이<sup>64)</sup> ‘청춘’이라는 용어를 제목에 적극 도입하기 시작한다.

‘청춘’이라는 어휘가 신소설의 표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10년대까지의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었다. 부모가 맺어준 정혼자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가출한 여인의 수난과 행복(『청춘남녀』), 절개 있는 기생의 사랑과 고난담(『청춘홍안』), 꿈속에서 만난 소녀와의 사랑을 다룬 몽유록계 모험담(『청춘화』) 등의 서사를 다룬 이 딱지본들은 1910년대 신소설의 구조와 윤리를 계승하면서도 ‘청춘’이라는 표제를 앞세움으로써 젊은 남녀의 사랑과 감성 그 자체를 표면으로 부각시켰다. 이제 남녀의 사랑은 ‘치악산’, ‘모란봉’, ‘홍도화’, ‘추월색’ 따위의 자연물에 비유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날것 그대로 상품 가치를 획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연극과 영화계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1910년대 ‘청춘’을 표제로 앞세운 연극은 극히 드물었던 데 반해<sup>65)</sup> 1920년대부터 「청춘의 夢」(《조선일보》, 1923년 4월 10일자), 「一刀의 청춘」(《조선일보》, 1926년 3월 5일자), 「청춘의 반생」(《동아일보》, 1928년 6월 4일자), 「깨어진

63) 여기서 쓰는 ‘신소설’은 ‘딱지본 대중소설’(이영미 외, 『딱지본 대중소설의 발견』, 민속원, 2009)로도 불리는 저가 대중 독물들이다. 이 글에서는 근대계몽기의 명칭을 계승하여 1930년대 발간된 딱지본들도 모두 ‘신소설’로 범칭한다.

64) 이상 ‘청춘’을 표제로 한 신소설 자료에 대해서는 송하춘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한 고려대학교 기초 학문 연구팀의 도움을 받았다. 지면을 빌려 감사드린다.

65) 「1910년대 한국 신파극 공연 연보」(양승국, 『한국 신연극 연구』, 연극과인간, 2001)에 따르면 1910년대 ‘청춘’을 표제로 한 연극은 오직 1914년 연흥사 문수성에서 공연한 「청춘」 한 편뿐이다.

청춘」(《동아일보》, 1929년 1월 25일자), 「청춘가」(《동아일보》, 1929년 8월 16일자), 「청춘의 혈」(《중외일보》, 1929년 10월 13일자), 「버림바든 청춘」(《동아일보》, 1930년 1월 31일자), 「이팔청춘」(《동아일보》, 1930년 12월 12일자)<sup>66)</sup> 등 ‘청춘’을 표제로 한 연극의 광고가 신문지상에 오르고, 서구 영화들이 「청춘을 회고하면」(《중외일보》, 1928년 6월 8일자), 「아-청춘」(《조선일보》, 1930년 6월 5일자) 등의 제목으로 탈바꿈하여 상연되었으며, 이 같은 표제들은 1930년대에 이르면 더욱 활발히 재생산된다. 신지식, 신도덕, 신문화 창출의 역군으로서 신문명 건설의 주체로 앞장섰던 청년의 주도적 가치는 바야흐로 ‘청춘’이라는 인접 어휘의 새로운 개념화에 이르러 대중문화의 상품화 전략과 급격히 손잡게 된 것이다.

1910년대의 신소설과 달리 ‘청춘’을 표방한 대중서사들은 이제 가부장적 윤리나 신문명 건설의 명분 이상으로 청년 남녀의 사랑과 고난에서 비롯된 내적 고뇌들을 서사의 전경에 배치했다. 정혼자에게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근무지에서 만난 처녀에게 반해버린 은행원 청년이 진실한 사랑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반대에 부딪혀 급기야 애인의 가족을 살해하는 데 이르는 나도향의 『청춘』(1920)을 비롯하여, 기독교인 유부녀가 애인에게 배신당한 은행원 청년과 사랑에 빠져 남편과 갈등을 겪고 친구와 은행원 애인 사이에 대한 질투 때문에 동반자살, 출가 등을 시도하게 되는 『의지할 곳 없는 청춘』(1927), 해수욕장에서 만난 여인과 사랑에 빠진 사범학교 교사가 종교적 문제로 반대에 부딪히자 독일로 사랑의 도피를 감행하고 출세와 성공에 이르는 『청춘의 광야』(1924), 조혼한 청년 교사가 여교사와 사랑에 빠져 열렬한 고백을 주고받는 『무정한 청춘』(1926) 등, 1920년대 청춘 서사들에서 남녀의 사랑은 이제 직접적인 서사의 중심부에 오르고 번민과 갈등, 고난과 모험에 처하게 되는 서사적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 청년남녀 당자의 이성에 대한 감정문제를 서사의 표면에 노출시킨 것은 애초에 맺어진 혼인이나 정혼을 위협하는 부모의 실덕, 악인의 간계 등 외부적 요소만이 서사적 갈등의 추동력으로 주로 기능했던 1910년대 신소설의 서사와는 뚜렷이 차이나는 현상이다.

66) 이상 신문 소개 연극에 대한 광고들은 다음 자료를 통해 조사했다. 안광희 편, 『한국 근대 연극사 자료집』 1-4권(역락, 2001).

그러나 붓물 치는 청년들의 감성, 욕망, 열정들이 신문명의 명분에만 의존하여 무조건적으로 옹호된 것은 아니었다. 1920년대 발표되어 1930년대까지 연극과 영화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최독건의 『승방비곡』은 ‘청춘’의 고뇌를 다음과 같이 생생히 기록한다.

내가 나를 이렇게도 괴롭게 하는 것은 도리어 최악이 아닐까? 파랗게 돋는 청춘의 싹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 붉게 피려는 인생의 꽃을 애처롭게도 따버리는 것이 과연 순리일까? [...] 나는 나를 부질없는 나의 고집에 그 얼마나 나를 학대했던가. 남이 불어넣은 나의 정신의 노예가 되어 나의 육체를 엮어매고 채찍질했던가. 육은 영과 똑같이 중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 육을 시달리게 하는 것은 곧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육을 위해 영을 희생하는 것이 최악인 것과 같이 영으로 해 육을 희생하는 것도 커다란 최악일 것이다. 떨떨 뛰는 청춘을 한아름 안은 내가 이성에 목말라하는 것은 당연 이상의 당연한 일이 아닐까. [...] 고장 없는 위장은 식물을 요구하고, 병 없는 청춘은 이성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그곳에 아무런 모순도 없고 최악도 숨지 않았다.<sup>67)</sup>

인용문은 일본 유학에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만난 음악가 김은숙을 사랑하게 된 윤외사 승려 최영일이 자신의 감정을 이기기 위해 은숙과 오누이의 언약을 하지만 그 약속이 사랑을 포장한 허위임을 깨닫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결심하게 되는 내면적 과정을 묘사한 부분이다. 청춘의 열정이 곧 “이성을 그리워하는 것”이며 “남이 불어넣은” 정신의 노예가 되어 육체를 부정하는 것은 곧 “커다란 최악”이라는 영일의 성찰은 당대를 풍미하던 자유연애의 이념과 ‘청춘’의 새로운 함의를 낳것 그대로 노출한다. 감정과 욕망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나를 이렇게도 괴롭게 하는 것”이 곧 “최악”이라는 성찰은 개체적 청년을 집단의 이념과 직결시키고 공사의 의무를 동일시했던 과거와 결별하는 변화된 인간관의 핵심과 맞닿는다.

그러나 감정과 욕망에 대한 이처럼 급격히 변화된 긍정은 그 안에 불안과 갈등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 욕망에 대한 영일의 긍정은 은숙이 실제로 자신의 친동생이었다는 마지막 반전을 통해 다시 가로막히고 만다. 수양과 책려의 임무를 버리고 청춘의 열정에 굴복한 영일의 선택은

67) 최독건, 『승방비곡(외)』(원작은 1927년), 강옥희 편(범우, 2004), 322-325쪽.

그의 사랑을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금기의 사랑으로 예비한 서사적 장치를 통해 궁극적인 좌절에 부딪히는 것이다. 영일과 은숙이 오누이임을 알고 있는 은숙 모가 부모의 권위로서 두 청년 남녀의 자율적 선택을 가로막는 데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심지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만큼 청년의 자유가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된 것과 비교할 때, 이 원천적 금기는 어떤 인간적 노력을 통해서도 극복될 수 없다는 점에서 훨씬 더 막강하다. 사실상 이 힘은 연애와 청년의 급진적 구호에 직면하여 대중들이 가졌던 불안과 동요를 반영하는 장치와 다름없다. 감정의 자유를 부르짖는 이념적 구호와 사회적 유행 앞에서 위기에 처한 일상의 감각은 청년들의 해방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금기된 사랑의 설정을 통해 열정의 제어와 윤리적 감각의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욕망의 해방이 초래할 파탄으로부터 삶의 균형감각을 보호할 수 있는 봉합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기실 구도덕과 단절함으로써 급격하게 주체화된 청년 집단과 그로부터 파생한 ‘청춘’의 감각은 주관적 열정을 상승시키고 그에 무제한적인 힘을 부여했지만, 감정·욕망·열정 등 정서적 요소를 생활체계와 합리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질서 있는 의미의 총체를 빚어내기 어려웠다. 청년이 표상하는 감각과 열정이 온전한 긍정을 얻기 위해서는 삶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측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보다 깊은 내면성의 원리와 실천의 가능성을 발견해야만 했다. 『승방비곡』이 마련한 청년의 원천적 좌절은 이 같은 파탄의 예감에 대한 대중들의 자기방어 장치에 적절히 부응한 서사적 장치였다. 청년 세대의 자율성과 청년의 해방을 역설하면서도 상징적 금기를 통해 그 좌절과 절망을 예비한 『승방비곡』의 서사가 연극, 영화로 만들어지고<sup>68)</sup> 1930년대 초반까지 대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청춘’이라는 어휘가 마련했던 갑작스런 감성 해방의 감각은 열렬한 지지를 받는 가운데서도 이처럼 감출 수 없는 불안과 동요를 노출하고 있었다.

68) 1927년 영화소설이라는 장르로 발표된 『승방비곡』은 1930년 동양영화사에서 영화로 제작되었으며, 동양극장 청춘좌의 간판 레퍼토리로 반복 공연되었다.

#### IV. 환멸과 연민, 혹은 네거티브 아이덴티티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1920년대 전반까지 사회운동의 주축이 되었던 민족주의계 청년운동은 급속히 쇠퇴했다. 청년보다는 계급을 앞세우는 사회주의 분파가 사회운동의 또 다른 세력으로 자리 잡고 한편에서는 청년들의 부랑 세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앞서 보았듯 청년 담론의 방향이 수양과 지도를 강조하는 쪽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습니다”<sup>69)</sup>라는 구호나 “청년이란 [...] 개인을 초월하여 종족에 살고 현재를 초월하여 무한한 장래에 살아야”<sup>70)</sup> 한다는 강변이 식민지 전 기간에 걸쳐 지속되었고, “나의 청춘은 나의 조국!”<sup>71)</sup>이라는 감상과 “奉事에 忠誠하라”<sup>72)</sup>는 강령이 여전히 유효한 힘을 발휘했지만, 근대국가 건설 주역으로서의 임무를 부여받고 부모(父老)와 구습에 대적할 수 있었던 월등한 우위는 더 이상 ‘청년’이라는 이름만으로 허락될 수 없었다. 청년은 이제 스스로 행동하기 이전에 “각 방면으로 지도 받을 어른”, “청년의 모범될 만한 인물”<sup>73)</sup>을 기다려야 했다.

이 같은 담론의 선회 속에서 청년 학생들의 향락적 유흥 세태에 대한 우려들은 갈수록 심화되었다. 1920년대 후반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한 논설과 연설들에는 이른바 ‘모-던’으로 지칭되는 도시 청년 문화의 부박한 현상에 대한 공격이 더욱 신랄해진다. “日本을 風靡하는 淫逸한 氣風은 飛行機를 타고 朝鮮에 날아와서 朝鮮의 장래를 囑할 유일한 자인 청년 男女의 맘을 蠱蝕하고 있다”<sup>74)</sup>, “薄行弱志의 청년들은 허영과 사치, 현대 風湖에 마취”<sup>75)</sup>되었다라는 진단이 빈발하는 가운데, 청년 학생들의 문화는 거센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다. 1929년 『학생』에서 실시한 「조선학생 기질문제」 특집에 참여한 인사들은 ‘角테 로이드 안경, 라팔바지, 라디오 머리, 월부풍금, 바요린, 橫笛, 선생 별명, 선진의 욕설, 썬스밴드, 유행가

69) 山翁, 「조선 청년의 용단력과 인내력」, 『동광』 9호(1927. 1), 3쪽.

70) 이광수, 「조선의 청년은 자기를 초월하라」, 『동광』 24호(1931. 8).

71) 정지용, 「海峽의 午前 二時」, 『카톨릭청년』(1933. 6).

72) 조만식, 「청년이어 압길을 바라보라」, 『삼천리』 8권 1호(1936. 1), 49쪽.

73) 교육협회 유진태, 「조선학생기질문제: 자성자계」, 『학생』(1929. 5), 9-10쪽.

74) 이광수, 「야수예의 복귀, 청년아 단결하여 시대 악과 싸호자」, 『동광』 21호(1931. 5).

75) 조만식, 「청년과 사회봉사」, 『삼천리』 8권 11호(1936. 11), 136쪽.

가요’ 등을 ‘조선학생의 대다수를 점령하는 기질’로 꼽았고, “華侈, 文弱, 戀愛”를 학생들의 의기를 침체시키는 3대 요소로 평가했다.<sup>76)</sup> 극장·색주가·중국요리집이 학생들의 점유지대이며, 한강·장충단·창경원·남산에서의 연애 행각이 근교의 숲과 온천으로까지 이어진다는 비난 속에서 ‘모-던 학생’은 문자 그대로 ‘못된 학생’을 의미<sup>77)</sup>했다.

학생과 모-던의 연계는 당시 청년 학생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근대적 대중문화의 핵심적 소비-창출자였다는 사실과 연관이 깊다. 신교육을 수혜한 청년 학생들은 새로운 삶에 기반한 문화적 변혁을 촉발하는 선도자들이었다. 근대문학, 영화, 라디오, 유성기, 신문잡지 등 대중문화 매체들의 활용능력을 지닌 주체로서 청년 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은 새로운 유행과 취향의 준거들을 생산하는 데 능동적으로 작용했고, 이들이 지닌 신문명적 지식과 문화적 역량은 학교가 주요 도시를 근거지로 설립되었던 만큼 도시 대중문화의 주요 소비 구매력이 되면서 대중문화의 새로운 유행과 취향의 준거들을 생산했던 것이다. “대중성과 엘리트의 양면성을 함께”<sup>78)</sup> 지닌 청년 학생층은 유행상품의 소비자인 동시에 신취향의 주요한 출처였다.

그러나 식민지의 제한된 여건 속에서 학생들의 문화 창출 역량은 주로 모던 걸, 모던 보이가 웅변하는 패션과 연애 시장으로만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모테 안경을 쓰고 와이셔츠 소매를 늘어뜨린 채 카메라나 펌플릿을 손에 든 남학생과, 짧은 치마에 가루분을 바르고 파라솔을 받쳐 든 채 거리를 활보함으로써 개성을 뽐내고자 했던 여학생들의 모습은 중매쟁이, 색주가, 매독임질병원 등의 타락상과 쉽게 연계되면서<sup>79)</sup> ‘華侈, 浮薄, 허영, 타락’으로 대변되곤 했다.

식민지 중후반 대중문화 속에서 ‘청춘’의 이미지를 지배했던 중심축의

76) 「조선학생 기질문제」, 『학생』(1929. 5) 참조. 이 특집에는 방정환, 《중외일보》 이상협, 普專 교장 박승빈, 중앙고보 교장 최두선, 보성고보 교장 정대현, 동덕여고 교장 조동식, 교육협회 유진태 등이 참여했다.

77) 남궁환, 「모던 중학생 풍경」, 『학생』 2권 6호(1930), 30-39쪽.

78) 천정환, 앞의 글(2004. 12), 38쪽. 천정환은 이 글에서 청년 학생이 대중문화의 주체가 된 것은 노동자계급의 여가문화 형성을 통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근대 대중문화의 형성 과정과 차이 나는 한국 대중문화 형성과정의 한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79) 1927년 8월 『별건곤』에 실린 안석영의 한 만화는 학생들의 방학 기간 파리를 날리는 상점으로 호떡, 빈대떡, 아이스케키 장사, 화장품상을 겸한 학용품점, 서포, 중국요리점, 피자점, 악기점, 극장과 더불어 중매쟁이와 매독임질병원을 빼뜨리지 않는다. 안석영, 「(만화)방학 동안의 경성거리」, 『별건곤』(1927. 8), 60-61쪽.

하나는 이 같은 모던 청년 문화였다. 1935년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조선중앙일보》가 마련했던 「청춘사전」이라는 코너는 ‘청춘’이 곧 모던 문화와 직결되었던 당시의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청년 간의 유행 외래어를 비롯하여 청춘을 상징하는 용어들을 풍자적으로 설명하는 이 코너는 ‘파라솔, 訓示, 밀회, 운동신경, 자살, 마니큐어, 相對死, 미용술, 봉투, 모델, 미망인, 여급’ 등의 어휘를 통해 당시의 청춘을 대변하고자 했다. 노년과 청년의 관계를 연상시키는 ‘訓示’를 제외하면, ‘밀회, 자살, 相對死, 봉투, 미망인, 여급’ 등 연애 풍속과 관련된 항목과 ‘파라솔, 마니큐어, 미용술, 운동신경, 모델’ 등 유행(멋)에 관련된 항목들이 대부분을 이룬다. 멋과 연애가 모던 청년의 대표 문화이자 ‘청춘’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음을 확인해주는 부분이다. 「청춘사전」 외에도 신문잡지들이 종종 개설했던 신용어 해설 코너들은 당시 청년들이 추구했던 첨단 감각들을 담아냈다. 모던 걸을 ‘못된 걸’<sup>80</sup>로, ‘되다만 하이카라’를 ‘토마토-하이칼라’<sup>81</sup>로 비꼬는 사회적 시선에 대항하여, 청년 학생들은 신시대적 변화를 누르고자 하는 태도를 ‘아니구로니즘’<sup>82</sup>, ‘오에스’<sup>83</sup> 등으로 지칭하며, ‘콤마 以下’<sup>84</sup>, ‘우오터맨’<sup>85</sup>, ‘有望’<sup>86</sup>, ‘제비’<sup>87</sup> 등 자신들만의 은어들을 고안해내며 우월한 문화자본을 과시하고

80) “모던걸(Modern Girl): (英) 신식으로 모양만 내고 향락적으로 생활하는 여자를 그리기 때문에 一說 「못된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남자면 「모던뽀이」라고 「新語辭典」, 『학생』 1권 2호(1929. 4), 84쪽.

81) “토마토-하이칼라: 토마토-란 빨간 일년감으로 서양인은 즐겨 먹지만 동양 사람의 입에는 그리 신통치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洋風을 좇출여고 억지로 먹기 조와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말. 되다만 하이카라를 빗정그릴 때 쓴다.” 「신어대사전(5)」, 『별건곤』(1930. 8), 70쪽.

82) “아니구로니즘: 시대착오의 의미. 시대의 변화,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인간의 사상과 관습이 변화되는 것인바 구시대의 사상과 습관으로써 신시대에 잇서서 높으고자 한다는 뜻이다.” 「新術語辭典」, 『대중공론』(1930. 9), 128쪽.

83) “오에스(O.S): 영어 「올드 스타일」(OLD STYLE)의 약어인데 「유행에 뒤떨어진 사람」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원래 영어의 「올드 스타일」이라는 말은 「舊式」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천문학상의 용어로서 新曆에 대한 舊曆의 약어이다. 이것을 학생간에 「구식」이라는 말로 쓴다.” 「流行語點考」, 『新東亞』 제1호(1931. 11), 54쪽.

84) “콤마 以下: 표준 이하, 즉 모자라는 것인데 사람도 못생긴 사람은 콤마 이하라고 한다. 「新語辭典(3)」, 『별건곤』, (1930. 5), 97쪽.

85) “우오터맨(Waterman): 카페에 가서 술과 料理가튼데 돈을 쓰지 안코 紅茶나 고히만 먹으면서 女給과 노리는 사람을 稱함이라.” 「모던어사전」, 『신만문』 제4호(1932. 12), 41쪽.

86) “有望: 未婚者란 意味.(아직 시집 안 갔스니까 시집갈 수 잇서서 有望하다는 뜻)”, 「신어성간 유행어」, 『삼천리』(1931. 4), 58쪽.

87) “제비: 年下の 情夫란 뜻(녀자가 저보다 나 어린 男子를 愛인으로 가질 때 그 사내를



자 했다.

이처럼 인텔리-청년-학생을 중심으로 한 모던 문화의 게토화가 진행되면서 ‘청춘’은 ‘모-던의 邪道’<sup>88)</sup>와 직결되어갔다. 재즈를 “모던 보이, 모던 걸의 청춘의 교향악”<sup>89)</sup>으로, 최고의 관객을 동원하는 극단을 “청춘좌”로 명명하며, 백화점에 진열된 찬란한 유행품의 아양에 유혹되는 시선을 “욕망을 담은 청춘안”으로,<sup>90)</sup> 여배우를 만나기 위해 이수라장을 만든 주인공들을 “정력 漲溢한 청춘들”로 묘사하고, “호강이 병들어 놓은 도회지의 청춘 남녀”에게 “호미를 들면 담박 낫는다”는 일침을 가하는 미디어의 수사 속에서, 젊음은 근대도시의 소비적인 유희문화의 창출자이자 희생자였고, 청춘은 이 부박한 문화의 표면에서 부유하는 기표였다.

주목되는 것은 이처럼 모-던 문화와 접촉한 청춘의 수사 속에는 그 자신 이러한 청춘의 시기를 지내왔고 아직도 그 일부임이 분명한 인텔리들의 자조 섞인 냉소가 짙게 드리워진다는 사실이다. 「청춘사전」관을 마련하여 청춘의 구성요소로 선정된 항목들을 기술하는 필자의 어조는 사뭇 모멸적이다. 예컨대 「훈시」는 “꾸중은 「나이」의 생리적 부작용이니 절대로 반항하지 말고 “올튼 글튼 그저 네, 네 하고만 잇스면 [...] 컷트아웃트”된다는 비타협적 태도로 기술되고<sup>91)</sup>, 「봉투」는 “남녀 간의 교제가 침단화하고, 경제화하고, 스피-드화한 까닭”에 전보, 전화로 대체되었다는 경멸적 어조로 설명되며<sup>92)</sup>, 「미망인」은 “외로운 곳에 집을 짓고 한숨으로 밤을 새는 부류, 남편의 죽음에 기꺼하며 미용실, 극장, 탄수화물을 전전하는 부류” 등으로 조롱되고<sup>93)</sup>, 「자살」 또한 “목구멍 안상하게 독약가루를 헌겁에 싸 먹기도 하고 생명에는 상관 업슬 대를 칼로 찢러 피를 낸다”는 假性 자살, “겨울이면 감기 안 들도록 주의해야 된다”<sup>94)</sup>는 水性 자살 등으로 회화화된다. 1920년대 전반을 풍미했던 연애 열풍의 진실성을 현격히 실추시키는 이러한 조소적 태도는 1930년대 눈에 띄게

---

제비라고-무슨 뜻의냐고? 다 아시면서”, 「신여성 간 유행어」, 앞의 책, 같은 곳.

88) 南宮桓, 「모던중학생풍경」, 『학생』 2권 6호(1930), 35쪽.

89) 「금야에 개최될 낭랑 음악대회」, 《중외일보》, 1929년 8월 17일자.

90) 「불야성풍경(第一)」, 《동아일보》, 1932년 11월 22일자.

91) 「청춘사전: 훈시」, 《조선중앙일보》, 1935년 8월 14일자.

92) 「청춘사전: 봉투」, 《조선중앙일보》, 1935년 9월 8일자.

93) 「청춘사전: 미망인」, 《조선중앙일보》, 1935년 9월 14일자.

94) 「청춘사전: 자살」, 《조선중앙일보》, 1935년 8월 23일자.

늘어나는 새로운 현상이었다.

모던 생활에 입문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지 은폐술, 부모 속이는 법, 돈 없이 첨단적 멋을 내는 방법, 책임 회피법 등을 역설하는 「모던 칼리지」(『별건곤』, 1930)를 비롯하여 「모던 행진곡」(『동광』, 1931-1932), 「모던 복덕방」(『별건곤』 1930-1931/『해성』, 1931), 「모던 과학 폐지」(『동광』, 1932) 등 각종 잡지의 ‘모-던’ 코너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 냉소적인 어법에는, 면학과 봉사의 정신으로 민족의 중추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이념적 청년상이 실제로 현실화되기 어려움을 경험했던 식민지 청년들의 불행의식이 아이러니하게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값비싼 학자금을 지불하고 학업에 입문한 학생들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았다. 식민지 전 기간에 걸쳐 조선인 학생들은 성장하지 못한 민족자본, 일본인 위주의 교육 및 취업 정책, 세계적인 경제 공황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취업난에 시달려야 했다.<sup>95)</sup> 제국대학, 대학, 전문학교, 중학교/고등보통학교라는 피라미드식 서열체제 아래서 사회적 직위와 급여에 철저한 학력제를 도입한 일제의 정책 탓에 학력주의 입시난이 극심했지만<sup>96)</sup>, 막대한 학비 때문에 상당한 부농이라 해도 자녀를 전문학교 이상 수학시키기 위해서는 전 재산을 쏟아 부어야 할 지경이어서 입학할 한다 해도 졸업에 이르기가 쉽지 않았다.<sup>97)</sup> 일본인 학생과의 차별대우와 군국주의 군사교육이 강화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민족운동의

95) 상위 학교 진급을 목표로 했던 고등보통학교 졸업자의 실업률은 극심했다.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고등보통학교만을 마칠 사람은 처음부터 입학시키지 않는 것”(김도태, 앞의 글, 3쪽)이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여기저기서 제출되었다. 상위 학교의 경우에도 취업난은 여전했다. 1924년 3월 10일자 《동아일보》의 「三災八亂」에 따르면 최고 학력자인 일본 유학 출신자 가운데 44%가 무직이었고, 조선 내 학교 출신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떨어졌다. 실용학문과 취업을 목표로 했던 보성전문과 연희전문 상과는 1928년 각각 69%, 73%의 취업률을 보이고, 1930년이 되면 보성전문의 취업률은 57%로 떨어진다. 이상은·박철희, 「1920-30년대 고등보통학생집단의 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26권 2호, 2004. 10, 97-119쪽; 정선이, 「일제 강점기 고등교육 졸업자의 사회적 진출 양상과 특성」, 『사회와 역사』 77호, 2008, 5-38쪽 참조.

96) 1932년 『삼천리』 4권 6호에 실린 「비밀탐정국」에 따르면 전문학교 교원의 초임은 75원, 고등사범 출신은 85원, 동경제대나 경성제대 학사 출신은 95원으로 학력에 따라 급여 차이가 뚜렷했다. 정선이, 위의 글(2008) 참조.

97) 보통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졸업생의 숫자는 입학생의 숫자에 비해 월등히 적었다. 일례로 1930년 중등학교 입학 학생은 그 나이 또래의 약 2%였고, 그나마 졸업자는 그 나이 또래의 1%로, 졸업자는 입학자의 7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또 학수비와 수업료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어지간한 부농이 1년간 벌어들인 수입의 약 40%가 소요되었다. 이기훈, 「젊은이들의 초상-식민지의 학생, 오늘의 학생」, 『역사비평』(2010. 2), 57-59쪽 참조.

기세 또한 약화되는 가운데, 입학난, 취업난, 학비 걱정을 헤쳐 나가야 하는 조선인 학생들은 이론적 강변과 현실 사이에서 심각한 혼란을 경험해야만 했다. “그처럼 애를 써서 그처럼 돈을 되려서 십 년 이십 년 공부한대야 놓고 지내기는 맞찬가지라는 사실이 현대 학생 현대 청년의 모-든 기운을 썩거”<sup>98)</sup> 놓는 가운데, 졸업하여 지식인의 부류에 속한 자들 또한 “성취한 일은 하나도 업고 생활난은 닥쳐오게 되매 [...] 일변하여서 어디로 어디로…… 닥치는 대로, 무엇이, 무엇이고, 다 없어져 버리고, 너무도 급속히 성장한 배금주의의 선구자”<sup>99)</sup>로 쉽게 전락하곤 했다. 자기책려의 정신과 성실한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자조론(自助論)식 논리가<sup>100)</sup> 조금도 통하지 않는 조선의 현실 앞에서<sup>101)</sup> 합리적 근대를 창출하고자 했던 ‘청년’의 계몽 이념은 뿌리 깊은 절망과 만날 수밖에 없었다.

환멸이 우리를 침노한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민중을 위해 진심으로 애쓰는 사람은 결국 고생하고 손해보고 버림을 받는다. 그 대신 거짓말 잘 하는 사람, 남을 해하려고 밤낮 궁리하는 사람, 비굴한 사람, 겉으로 쟁쟁하고 속으로는 비열한 행동을 하는 사람, 민중을 파는 사람이 출세를 하고 환영을 받고 상좌에 앉고 무엇보다도 괴상한 것은 상당한 사업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철학이 생겨난다. 모든 리상을 파괴하고 오직 「빈정거림」이 유일한 가치의 비판이 되고 만다.<sup>102)</sup>

모-던 청년들의 냉소주의 풍조를 고발하는 윗글의 필자는 정직과 성실보다는 비굴과 비열이 ‘괴상하게도’ “상당한 사업을 성취”하는 전도 된 현실 앞에서 청년들이 직면했던 정체성의 혼란을 여실히 드러낸다. 민족 계몽의 주축이라는 과거의 자신감이 여지없이 실추되는 현실에서 식민지 초기 ‘청년’이 상징했던 계몽 주체로서의 정체성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구세대와 과격하게 단절할 수 있었던

98) 보성고보 교장 정대현, 「정신적 자살: 조선학생 기질문제」, 『학생』(1929. 5), 8쪽.

99) 박영희, 「朝鮮知識階級の 苦悶과 其 方向」, 『개벽』(1935. 1), 9-10쪽.

100) 최남선이 사무엘 스마일즈의 Self Help를 번역하여 출간한 책 『자조론』(1918)은 1910년대 후반 청년 계몽주의자들의 자기책려의식을 복돋웠던 대표적 계몽주의 논리의 하나였다.

101) 「MODERN COLLEGE 개강」, 『별건곤』 28호(1930. 5), 49-60쪽.

102) 「조명탄」, 『동광』 22호(1931. 6), 60-61쪽.

과거의 자신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계몽의 언설과 입신양명의 꿈은 청년 인텔리들의 상처를 증폭시켰고, 풀리지 않는 취업난과 생활고 위에서 상처 받은 ‘청춘’이 도달하는 곳은 도저한 환멸과 냉소였다. 패금 여학생들이 흔히 하는 오락은 “연애하고 활동사진 하고 화투 이 세 가지가 거의 전부”임을 “욕먹을 각오하고 정직하게”<sup>103)</sup> 대답한 한 여학교 졸업생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이 공부가 필요한가 [...] 학부형 역시 이러타 할 목적이 업”<sup>104)</sup>다고 항의했다. “직업적 責任感, 민족적 사회적 公道에 대한 노력, 또는 개인적 취미와 희망에 의한 남몰을 고심과 勉勵”를 축적해온 한 청년은 “기막힌 현실 우에 입각”한 “기적과 가티도 明明업는 생활”에 직면할 때, “가장 찬연해야 할 [...] 청춘의 銳氣는 무디게”<sup>105)</sup> 될 수밖에 없음을 절절히 토로하기도 했다.

식민지 중후반의 ‘청춘’이 표상하는 퇴폐적 환락과 유흥의 정서는 이 뿌리 깊은 환멸과 냉소의 산물이다. ‘조선학생의 대다수를 점령하는 기질’의 하나였던 유행가 가요들은 ‘청춘’과 퇴폐, 유흥 정서의 접합 양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청춘계급〉, 〈청춘의 밤〉, 〈슬허진 젊은 꿈〉, 〈이팔청춘〉, 〈청춘타령〉, 〈경성은 조흔 곳〉 등 ‘청춘’을 소재로 한 다수의 재즈, 유행가, 신민요들이 미래를 기획할 수 없는 청춘들의 출구 없는 환락을 묘사했다.

이 밤이 다 새도록 술 마시고 놀시다/젊음의 한 시절은 꿈과도 갓타니/리별의 노랠낭은 지금 아직 두고요/사랑의 한 밤을 춤추고 쉰시다.-최명주 노래, 유행가, 〈청춘의 밤〉<sup>106)</sup>

에——/색보고 오는 호접 네가 막지 마러라/뜻지고 님이 피면 차저을 이 업구나/에 ——/청춘아 이날을 즐거웁게 마셔라, 칠선녀 그 사랑 몸에 감고 놀세나, 열사구나 절사구 노래하고 춤을 추어라/두리둥기둥실 청춘이로다-강홍식 노래, 신민요, 〈청춘타령〉<sup>107)</sup>

103) 손명숙, 「여학생생활해부」, 『학생』(1930. 2). 17쪽.

104) 위의 글, 15쪽.

105) 이해문, 「청춘수필: 불평, 희망, 장래」, 《조선중앙일보》, 1935년 11월 2일자. 민족과 사회에 대한 의무 및 개인적 희망을 위해 분투해온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쉽게 벽에 부딪혀왔는지를 기술한 이 수필은 불평과 비판을 토로하는 가운데 결말에서는 부박한 세대를 넘어서 참된 삶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106) 콜롬비아 레코드 40451A, 한국고음반연구회·민속원 공편, 『유성기음반가사집』(민속원, 1990), 97쪽.

세상은 젊어서요 젊어서는 멋대로/어엿분 계집의 술 안이 먹고 멋하리/부어라  
먹자먹자 오날밤이 새도록/래일은 지옥가도 오날만 천당-강석연 독창, 〈세상은  
젊어서요〉<sup>108)</sup>

우리는 에로리카 그들의 용사다./아-상냥한 악마여/아-다리리리 다리리리  
다답다/산뜨리 마시며 춤추고 노래해-김해송 노래, 〈청춘계급〉<sup>109)</sup>

상냥한 악마의 유혹을 기다리며 그들의 영웅으로 자신을 선언하고, 내일의 지옥을 기약하며 오늘의 술과 댄스, 노래에 빠져드는 이 젊음의 표현들 속에서, ‘청춘’은 자기파괴에 가까운 절망적 유희의 표상과 다르었다. 이는 ‘청춘’이 함축하는 젊음의 감성이 ‘청년’이 표방했던 집단적 정체성과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창출할 수 없었던 제한된 상황의 결과이다. 감성의 충동과 이성의 요구를 종합할 수 있는 총체적 합리성의 세계를 상상하고 기획할 수 없었던 식민지의 제한된 여건 속에서,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도시 청년들에게 ‘청춘’의 감성은 미래 없는 향락 속으로 쉽게 빠져들어 갔다. 젊음의 감성과 개체성은 낙후한 사회를 변혁할 힘이자 변혁해야 하는 발판이었지만, 또한 그 무엇도 실질적으로 이루어 낼 수 없는 무능과 좌절 속에서 놓여 있었다. 모-던 도시 문화가 유발했던 환락과 유희의 청춘 표상은 이 허무와 절망에서 비롯된 자기파괴적이고 찰나적인 도취의 표출이자 소극적이거나 세속적 방식으로 구현된 저항의<sup>110)</sup> 표현이었던 셈이다.

중등 이상의 학력을 지닌 도시 청년들의 모-던 문화가 이처럼 환락의 형상으로 청춘을 표상하는 다른 한편에서, 1930년대 일반 대중의 호응이 컸던 영화, 연극, 대중소설, 신소설 등은 ‘슬픔’과 ‘연민’의 정서로서 ‘청춘’을 형상화했다. 1920년대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청춘’이라

107) 콜롬비아 레코드 40610, 위의 책, 139쪽.

108) 빅타 레코드 49105B, 위의 책, 310쪽.

109) 박영호 작사, 김송규 작곡, 김해송 노래, 〈청춘계급〉, 1939년 6월 콜롬비아 레코드 (40813A); 박예경, 「환락과 환멸-1930년대 만요와 재즈송에 나타난 도시의 ‘낮선’ 형상」, 『구비문학연구』 29호(2009), 155쪽에서 재인용. 1930년대 재즈송이 도시문화 경험의 반영으로서 일탈적 욕망을 도시의 환락, 쾌락으로 표현하고 있었음을 규명한 이 논문은 도시가 젊음의 특권이 허용되는 공간으로서 젊음 혹은 청춘이라는 말과 자연스럽게 조응하고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

110) 퇴폐와 환락은 비생산적 유희 현상의 하나이지만, 지배이념에 대한 순응을 비껴가는 비타협적 행위라는 점에서 비록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일종의 저항성을 함축한다.

는 표제는 1930년대 들어 통속적인 대중서사 작품들의 표제에 더욱 빈번하게 이용된다. 1927년 상영된 〈이팔청춘〉 이래, 조선영화계는 〈청춘의 설음〉(이영춘 감독, 마산 불멸 키네마, 1932), 〈청춘애화: 빛나는 인생〉(원산 만 감독, 원산 만 프로덕션, 1933) 〈청춘의 십자로〉(안중화 감독, 금강키네마, 1934), 〈청춘보부대〉(홍개명 감독, 조선 키네마, 1938), 〈청춘야화〉(고려영화사, 1940) 등의 영화들을 제작했고, 〈청춘만세〉(1936), 〈청춘의 바다〉(1936), 〈청춘 회상곡〉(1937), 〈바다의 청춘〉(1939), 〈아름다운 청춘〉(1939), 〈강 건너 청춘〉(1939) 등 외화를 ‘청춘’을 앞세운 제목으로 번안하여 상영하는 일도 더욱 잦아졌다. 극장에서는 〈방황하는 청춘들〉(동양극장, 《동아일보》, 1937년 7월 4일자), 〈청춘일기〉(동양극장, 《동아일보》, 1937년 8월 15일자), 〈봄 없는 청춘〉(《동아일보》, 1937년 11월 5일자) 등의 연극들이 상영되었고, 전영택·박태원·염상섭·한설야·이태준 등 지명도 있는 근대작가들이 〈청춘곡〉(전영택, 《매일신보》 1936년), 〈청춘송〉(박태원, 《조선중앙일보》, 1935년: 미완), 〈청춘항로〉(염상섭, 『중앙』, 1936년: 미완), 〈청춘기〉(한설야, 《동아일보》, 1937년), 〈청춘무성〉(이태준, 《조선일보》, 1940년) 등의 장편을 신문에 연재함으로써 주목을 끌기도 했다.

1920년대부터 ‘청춘’을 표제에 도입하기 시작했던 신소설은 ‘청춘’이라는 어휘의 상품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매체였다. 『청춘의 한』(영창서관, 1932), 『청춘의 미인』(태화서관, 1932), 『청춘의 情史』(대성서림, 1932), 『청춘의 애인』(세창서관, 1933), 『청춘의 환희』(영창서관, 1933), 『청춘의 무정』(덕흥서림, 1934), 『청춘의 혈루』(덕흥서림, 1934), 『청춘의 화몽』(박문서관, 1934), 『청춘 시대』(영창서관, 1935), 『청춘의 보쌈』(세창서관, 1935), 『빛나는 청춘』(성문당서점, 1936), 『병든 청춘』(영창서관, 1938), 『앗가운 청춘』(보성서관, 1937) 등 신소설들은 적극적으로 ‘청춘’의 상품성을 이용하려 했다. 대부분 고학생 내지는 학생 출신<sup>111)</sup> 주인공과 이들에 얽힌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신소설들은 자유연애 풍조에

111) 대체로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 수준을 지닌 청춘 표제 신소설 작품 속 청년들은 미국 시카고(『앗가운 청춘』의 영훈), 독일 백림(『앗가운 청춘』의 리경화와 최장호), 일본 동경(『청춘의 정사』의 류재민과 윤근애 및 『청춘의 화몽』의 이상진, 『청춘의 情史』의 류재민, 『청춘의 광야』의 박경신과 박준식 등) 등 화려한 외국 유학 출신자가 많은 한편, 『이팔청춘』의 고학생 김영환, 『청춘의 한』의 고학생과 창조, 『청춘의 미인』의 고학생 순자 등 고학생 또한 다수를 차지한다.

일정하게 저항하는 새로운 서사를 담아냄으로써 ‘청춘’의 변화된 문화를 반영했다.

1920년대 ‘청춘’을 표제로 한 신소설이 부모의 실덕, 조혼의 폐해, 여성의 배신, 악당의 모함을 고난의 원인으로 삼았다면, 1930년대 신소설들에서는 자유연애로 만난 남녀의 결합이 감정의 변화로 속절없이 깨어지는 모티프들이 등장하는가 하면(『청춘의 한』, 『청춘의 열정』), 자율적 의지로 만났던 이성의 부도덕성을 발견하고 부모가 정해진 정혼자와 결혼함으로써 비로소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인물들(『청춘의 정사』, 『앗가운 청춘』)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유연애를 추종하는 고등교육자를 음험한 검탈자로 설정(『앗가운 청춘』)하기도 한다. 1920년대 중반까지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연애와 주관적 감성의 해방이 내포하는 위험과 불완전성이 서사구도를 통해 의식의 표면으로 관연히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청춘을 소재로 한 대중서사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경향이었다.

성, 연령, 학력 수준 등에서 차이 나는 다양한 대중들의 기호에 부응하고자 했던 1930년대 대중서사물들에서 상품화된 ‘청춘’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특징은 대부분의 청년 주인공들이 가진 자와 현격히 대조되는 위치에서 심각하게 박탈된 자의 형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청춘의 한』, 『이팔청춘』, 『청춘의 미인』, 『청춘의 혈루』 등 ‘청춘’을 표제로 한 식민지 중후반 딱지본 신소설의 다수 주인공이 가난한 고학생들로서 나날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어려운 생활을 유지했다. 신문에 연재된 대중소설에서도 젊은 주인공들의 박탈감은 그리 다르지 않았다. 『청춘기』의 태호는 동경 유학을 마치고도 오랜 구직 시간을 보내며 부유한 의사 명학과의 연적관계를 감당해내야 했고, 『청춘곡』(전영택)의 주인공 한실의 고난은 기생이라는 처지를 비웃는 소리에 낙담하며 감행한 가출에서 출발한다. 『청춘무성』(이태준)의 여학생 득주는 교사 치원을 모략에 빠뜨려 학교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악행을 자행하지만 병든 가족과 기생이 된 언니를 둔 채 팔려가는 처지에 있던 그 고통의 진실성을 이해받음으로써 동정을 얻고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1938년 11월 6-28일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제 1회 영화제에서 무성영화부 일반 관객 인기투표 6위를 차지함으로써<sup>112)</sup> 대중성을 인정받았던 안종화 감독의 영화 〈청춘의 십자로〉는 가난한 하층 노동자 청년과

부유한 모던 보이의 대립적인 생활상을 극명하게 시각화해내면서 당대 청춘 서사의 특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작품으로 주목된다. 영화의 주인공 영복은 고향에서 봉선네 집 데릴사위로 일하다가 부유한 명구에게 봉선을 빼앗긴 아픈 기억을 지닌 채 경성역에서 수화물 운반부로 일하며 만난 주유소 직원 영희와 사랑을 키워나가지만, 가난 때문에 다시 영희를 난봉꾼인 모던 보이 개철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하는 인물이다. 영희를 농락한 개철을 찾아간 영복이 카페 여급이 된 여동생 영옥 또한 개철에게 유린당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면서 분노에 찬 폭력으로 개철 일당을 응징하는 과정이 이 영화의 기본 골격이다. 사랑과 돈 사이에서 방황하는 개인적 윤리의 문제가 갈등의 중심을 차지하는 가운데, 도시 노동자가 겪는 빈부 격차를 애정 윤리와 연계시킨 이 작품은 두 계급의 현격한 사회적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당대의 대중이 생각했던 ‘청춘’의 현재가 무엇이었는지를 압축적으로 형상화했다. 가난 때문에 개철과 명구에게 희생당할 위기에 처한 영희와 영옥, 사랑하는 여인을 빼앗기게 된 위기 앞에서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는 영복과 그 친구들에게 ‘청춘의 십자로’란 박탈된 자들이 직면하는 생존 위기와 윤리 위기의 교차점과 닮았다. 생존이 곧 타락으로 직결되는 선택의 기로에서 박탈된 젊음이 선택한 폭력적 분출은 관객의 욕망을 상상적으로 만족시킴으로써 절망적 상황과 대면하는 관객들의 걱정과 심리적 파탄을 봉합시켰다.

〈청춘의 십자로〉뿐만 아니라 『청춘』, 『청춘의 한』, 『청춘곡』, 『청춘기』, 『순정해협』(1937) 등 다수의 청춘 서사들이 주인공의 폭력, 살인, 자살, 투옥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통해 사랑과 열정에서 비롯된 갈등과 위기를 결말지었다. 폭력적인 선택은 박탈된 인물들에게 주어진 최후의 수단이자, 불합리한 지배와 자본의 횡포에 억눌렸던 대중들의 숨겨진 욕망을 충족시키는 서사적 장치였다. 그러나 이 폭력적 분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판타지적 만족에 이르기까지, 서사과정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젊음들의 좌절과 슬픔으로 대중의 몰입을 유도하는 데 몰두한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 통속 ‘청춘’ 서사들이 대중들의 감정을 이입시키고 공감을 불러일으킨 핵심적 요소는 박탈과 슬픔의 정서이자 그로부터 환기되는 연민의 공유였던 셈이다.

112) 「명화, 빼스트 텐 당선」, 《조선일보》, 1938년 11월 23일자.



‘청춘’이라는 표제가 표상했던 젊음의 감성과 열정은 그것이 구현되어야 할 당대 현실 조건과의 연관 속에서 형상화될 때, 분노와 슬픔, 동정과 연민의 부정적 정서로 현상했던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통속적 대중서사가 표상했던 슬픔, 연민의 청춘과 모-던으로 지칭되는 학생-인텔리들의 환락의 청춘 사이의 거리는 실상 그리 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양자는 결핍감과 부정성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모-던 ‘청춘’이 표상했던 환멸과 환락이 계몽의 총아로 격앙되었던 청년 인텔리의 현실적 무능성과 제한된 상황의 반영이라면, 통속 대중서사의 ‘청춘’이 그려낸 박탈감과 슬픔의 정서는 타율적인 자본주의화가 산출한 사회적 격차와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 이념이 부재한 현실의 반영이었다. 달리 말하면 양자는 모두 젊음이 식민지 초반과 같은 진취적 ‘청년’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정열적 ‘청춘’으로도 발현되지 못하는 제한된 현실의 결과인 것이다. ‘청년’과 ‘청춘’이 과거와 같은 긍정적 의미를 발현하지 못하고, 유년이 성숙에 이르기 위해 학습하고 동화되어야 할 집단적 결정요소가 이처럼 부정적 한계로만 나타나는 현실에서 젊음이 스스로를 정체화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부정’이었다. ‘모-던’ 문화의 환락과 통속대중서사의 슬픔 속에서 ‘청춘’은 박탈된 현재에 대한 응시와 부정의 정서 위에 정체화된다. 이 부정과 거부, 혹은 네거티브 아이덴티티는 희망하고 동경할 수 있는 정체화의 모델이 부재한 굴절된 상황의 반영이자 식민지적 근대가 야기한 불안의 한 형상이었다.

동화되어야 할 모델과 긍정적인 전망을 현실 위에서 찾을 수 없을 때 과잉 상승한 젊음의 주체성이 쉽게 선택하는 것이 급진적인 거부의 방법이다. 그러나 젊음의 감성과 정열은 주관적 상태가 아니라, 개체가 살아가야 할 사회와 윤리적인 소통을 거쳐 적절히 안정된 관계를 맺을 때에만 비로소 진정하게 긍정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젊은 세대들이 자신과 분리된 개인들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상호작용의 공간을 형성하고 이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바람직한 상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성숙에 이르지 못하고, 전체적인 문화의 압박 속에서 과상승했던 한국 근대의 특수성은 ‘청춘’의 열정이 부정적인 대상들의 거부를 통해 정체화되면서 급격한 환멸과 연민의 정서로 진전될 수밖에 없었던 주요한 원인이다. 식민지 후반의 ‘청춘’은 전능하면서도 무능했다. 개체

내부의 추상적 전능성과 집단적 현실 위의 실제적 무능 사이에서 열정과 개체성의 긍정을 통해 근대화되었던 ‘청춘’ 개념은 환락과 슬픔의 표상으로 쉽게 전이되어갔다.

## V. 맺음말

젊음의 기표도 역사를 갖는다. ‘청년’이 부모 세대에 맞서 문명건설에 매진해야 할 자수자양의 존재로 자리매김되고 국민국가 건설의 기관차로 이상화됨으로써 근대적으로 개념화되었다면, ‘청춘’은 개체의 고유한 내면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열띤 감각과 감정을 긍정하는 젊음의 또 다른 측면을 공식화함으로써 개념적으로 근대화된다. 개체와 공동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청년’이 노년과 대립하고 여성을 배제하는 배타적 방식으로 작용하는 개념이었다면, 개체와 욕망의 관계를 부각시킨 ‘청춘’은 젊음의 충동적이고 비가시적인 열정을 공공화하면서 ‘청년’의 배타적 범주와 고정된 표상질서에 균열을 가했다.

그러나 긍정적 기대와 폭발적 호응 속에서 젊음을 주체화했던 ‘청년’과 ‘청춘’은 양자의 적절한 조응관계를 탐색하기 이전에 식민지의 모순된 현실에 부딪혔다. 1920년대 중반 민족운동과 청년운동이 함께 위축되고 일본 학생과의 차별대우 속에 입학난, 취업난에 시달렸던 학생들의 부랑 세대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면서 ‘청년’의 위상은 평가절하되었고, ‘청춘’의 의미는 화치부박(華侈浮薄)한 문화 양태와 직결되어갔기 때문이다. 청년의 문화적 역량은 패션, 화장품, 연극, 영화, 소설 등 식민지 시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대중문화상품에 흡수되어감으로써 ‘청춘’을 자본주의적 상품의 하나로 변모시켰다. 청년-학생-인텔리들을 주축으로 한 ‘모-던’ 문화의 싹은 ‘청춘’을 퇴폐적 환락과 접속시켰고, 연극·영화·신소설 등 통속 대중서사들은 박탈된 당대 젊은이들의 형상을 통해 눈물과 동정을 유도해냄으로써 ‘청춘’의 감각을 슬픔의 정서로 표상해갔다. 통속적인 대중문화가 ‘청춘’을 표상했던 환락과 슬픔의 정서는 젊음이 진취적 ‘청년’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정열적 ‘청춘’으로도 발현되지 못하는 제한된 현실의 결과이자 지극히 세속적인 방식으로 구현된 저항의 하나였다.

청년과 청춘이 보여준 개념적 차이와 길항관계는 집단적 이상과 개체적 내면 사이의 조응이야말로 젊음의 가능성이 긍정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요소인지를 실감하게 한다. 청년이 근대국가의 신체이자 동력으로 개념화되자마자 청춘의 감성과 열정이 공공화되고, 이 열정이 다시 번민으로 이동할 때 청년의 활력이 위축되었던 일련의 과정들은, 젊음의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청춘의 개체적 감성이 청년의 집단적 기획과 합리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상상하고 실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을 확인해준다. 청년과 청춘이 자유로운 실험 속에서 서로 협상하고 조정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던 식민지 상황에서 ‘청춘’은 부박한 환락과 슬픔의 표상으로 변이되어갔다. 인생의 일주기를 가리키는 중립적 기표에서 젊음의 개체적 감성에 사회적 의미를 붙여넣는 기표로, 다시 부박한 환락과 슬픔의 기표로 이동해간 ‘청춘’의 역정은 개체적 감성과 사회적 전망의 창조적 결합이 가능한 역사사회적 조건에 대한 성찰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 2000.
- 김동환, 「일제 시기 ‘모던’ 중학생 문화에 대한 담론의 일고찰」. 『세명논총』 7집, 세명대학교, 1998, 285-304쪽.
- 김윤희, 「한국 근대 신어 연구(1920-1936년)-일상·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국어사 연구』 11호, 국어사학회, 2010, 37-66쪽.
- 김지영, 『연애라는 표상: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사랑』. 소명, 2007.
- 박애경, 「환락과 환멸-1930년대 만요와 재즈송에 나타난 도시의 ‘낮선’ 형상」. 『구비문학연구』 29호,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139-165쪽.
- 박철희, 「1920-30년대 고등보통학생집단의 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26권 2호, 한국교육사학회, 2004. 10쪽, 97-119쪽.
- 소영현, 『문학 청년의 탄생』. 푸른역사, 2007.
- 신강호, 「영화 〈청춘의 십자로〉의 스타일 연구」. 『현대영화연구』 7집,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09, 27-56쪽.
- 안광희 편, 『한국 근대 연극사 자료집』 1-4권. 역락, 2001.
- 양승국, 『한국 신연극 연구』. 연극과인간, 2001.
- 윤영실, 「국민국가의 주동력, ‘청년’과 ‘소년’의 거리」. 『민족문화연구』 48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99-125쪽.
- 이경훈, 「청년과 민족-『학지광』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4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269-303쪽.
- 이기훈, 「청년, 근대의 표상-1920년대 ‘청년’ 담론의 형성과 변화」. 『문화과학』 37, 문화과학사, 2004, 207-227쪽.
- \_\_\_\_\_, 「일제 시기 청년 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_\_\_\_\_, 「젊은이들의 초상-식민지의 학생, 오늘의 학생」. 『역사비평』, 2010. 2, 50-83쪽.
- 이영미 외, 『딱지본 대중소설의 발견』. 민속원, 2009.
- 정선이, 「일제 강점기 고등교육 졸업자의 사회적 진출 양상과 특성」. 『사회와 역사』 77호, 한국사회사학회, 2008, 5-38쪽.
- 천정환, 「식민지 시기의 청년과 문학·대중문화」. 『오늘의 문예비평』, 2004. 12, 36-56쪽.
- 한국고음반연구회·민속원 공편, 『유성기음반가사집』. 민속원, 1990
- 황호덕, 「청년, 그 이상의 이념을 생각하다」. 『당대비평』 21호, 2003. 3, 235-249쪽.

## 국 문 요약

젊음의 기표도 역사를 갖는다. ‘청춘’이 젊음을 가리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 기표가 표상하는 의미의 층위는 그것이 놓이는 사회 정치적 구조 및 그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인식 지향과의 역학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청춘’의 의미는 젊음이 배치되는 사회구조와 생활양식 및 의식 지표가 복합적으로 관련을 맺는 구성물로서, 각 시대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인식되고 표상된다.

계몽잡지를 필두로 한 1900년대 미디어에서 ‘청춘’이 대체로 하나의 시기를 중립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었다면, 1920년대 본격적으로 개화를 맞은 근대문학에 의해 ‘청춘’은 감각과 감정을 공공화하고 개체성을 긍정하는 어휘로 전환된다. ‘청춘’이 국민국가 건설의 기관차로 이상화되고, 부모 세대에 맞서 문명건설에 매진해야 할 자수자양의 존재로 자리매김됨으로써 근대적으로 개념화되었다면, ‘청춘’은 개체의 고유한 내면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열띤 감각과 감정을 긍정하는 젊음의 또 다른 측면을 가시화함으로써 개념적으로 근대화된다. 개체와 공동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청춘’이 노년과 대립하고 여성을 배제하는 배타적 방식으로 작용하는 개념이었다면, 개체와 욕망의 관계를 부각시키는 ‘청춘’은 젊음의 충동적이고 비가시적인 열정을 공공화하면서 ‘청춘’의 배타적 범주와 고정된 표상질서에 균열을 가했다.

그러나 긍정적 기대와 폭발적 호응 속에서 젊음을 주체화시켰던 ‘청년’과 ‘청춘’은 식민지의 모순된 현실 속에서 처음과 같은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다. 1920년대 중반 사회주의 세력이 등장한 이후 청년 운동이 쇠퇴하고 일본 학생과의 차별대우 속에 입학난, 취업난에 시달렸던 학생들의 부랑 세대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청춘’의 위상은 평가절하되었고, ‘청춘’의 의미는 화치부박(華侈浮薄)한 문화 양태와 직결되어갔다. 이는 식민지 시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대중문화 산업이 패션, 화장품, 연극, 영화, 소설 등 문화상품에 ‘청춘’이라는 이름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젊음의 감성과 활력을 자본주의적 상품의 하나로 변모시켰기 때문이다. 청년-학생-인텔리들을 주축으로 한 ‘모-던’ 문화의 신포조는 ‘청춘’을 퇴폐적 환락과 접속시켰고, 연극·영화·소설 등 통속 대중서사들은 박탈된 당대 젊은이들의 형상을 통해 눈물과

동정을 유도해냄으로써 ‘청춘’의 감각을 슬픔의 정서 속에 투영하곤 했다. 환멸의 ‘청춘’과 연민의 ‘청춘’은 젊음이 진취적 ‘청춘’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정열적 ‘청춘’으로도 발현되지 못하는 제한된 현실의 결과였다.

**투고일** 2011. 6. 14.

**수정일** 2011. 8. 5.

**게재 확정일** 2011. 8. 17.

**주제어(keyword)** 청년(Cheongnyon), 청춘(Ceongchun), 식민지(Colonial Korea), 대중소설 (Popular fiction), 신소설(Sin-oseol), 승방비곡(Seungbang-bigok), 청춘의 십자로(the Cross Road of the Youth), 모던, 도시문화(Modernity), 대중문화(Popular Culture), 개념사 (Concept Study), 학생(Youth) 대중서사(Popular narrative), 근대(Modern), 대중매체(Mass Media)